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福音書上에 나타난 예수 敎育論의 特性에 관한 硏究

- 敎會敎育 經營의 本質을 追求하기위한 한 試圖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Educational Theory of Jesus Christ Appearing on the Gospels

1995年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幸 植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福音書上에 나타난 예수 敎育論의 特性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Educational Theory of Jesus Christ Appearing on the Gospels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1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幸 植

金幸植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12 月 日

審査 委員長 金 環 培

審 査 委 員 曺 英 燦

審 査 委 員 金 泰 京

目　　次

Ⅰ. 緖　　論 1

1. 硏究의 必要性 1

2. 硏究의 目的 2

3. 硏究의 內容 3

4. 硏究의 方法 및 範圍 4

Ⅱ. 福音書上의 예수 敎育論의 特性에 관한 探索 5

1. 예수의 敎師 資質論 5

2. 예수의 敎育目標 18

3. 예수의 敎育原理 28

4. 예수의 敎育內容 45

5. 예수의 敎育方法 72

6. 예수 敎育의 領域 99

Ⅲ. 福音書上의 예수敎育의 成果 117

1. 人格의 變化 118

2. 삶의 變化 119

3. 改革의 刺戟 119

4. 奉仕生活의 刺戟 121

IV. 要約및 結論 123

1. 要 約 123

2. 結 論 125

參考文獻 127

Abstract 131

I. 緖　論

1. 硏究의 必要性

한국교회는 110년이란 전통을 갖게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이루어 전 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1천만명이 넘는 신도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다. 많은 외국 신학자, 목회자, 신학도들이 한국교회를 배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다. 1천만명이상으로 추산되는 신도의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교회의 내적 측면인 교회교육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

교회의 사명 중의 하나는 교육적 사명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도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질적 향상이 불균형화되어 교단분리가 초래되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 교육은 퇴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신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힘없는 존재들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후패(朽敗)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고도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교육 낙후의 징후들은 한국교회 발전의 장애들이다.

이제 교회교육의 개선 되어져야 할 과제는 1천만 신도들이 복음서를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교육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빨리 깨

닫고 교회교육의 새로운 활성화에 눈을 떠야 하며 교회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교육의 이론적 밑바탕이 재정립되어 질 때 가능해 질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의 창시자이며 주체인 예수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찰하여 그의 교육을 재정립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인탁 은"이제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성숙한 이론적 기초위에 서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였다. 1960년까지는 신앙의 정열에 인도되어지고 이론적인 반성이 없거나 결여된 상태였다"[1]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교육의 시작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예수의 교육론 연구는 교회교육을 그 본래의 위치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패턴(pattern)이요 원리라 생각되어져 복음서상에 나타난 예수 교육론의 특성 연구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2. 硏究의 目的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계역사에도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한국적 문화속에 어느정도 뿌리 내려 자리 잡았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내실 있는 교회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교육에 기초를 둔 교육이어야 한다. 예수가 오랜 역사를 가진 유대전통의 권위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었던 교사로서의 권위 라든가, 복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가르쳤던 그의 교육방법, 그의 人格的 삶의 모습으로 피 교육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극대화 했던일, 여러 가지 교훈의 형태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행위 등은 현대 교회교육의 목표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해 주고 있기

---

1) 오인탁 외 4인 편저, 「기독교 교육론」,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84), P.20.

때문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론에 입각해서 교회교육 개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기복주의, 물량주의, 권위주의라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겠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순수한 교회교육의 원형을 예수의 교육에서 찾고 그로 인하여 무능해진 현대 교회교육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교회교육을 살려 교회의 질적 성장과 이 땅위에 하나님나라 확장을 이루는 일이기에 교회교육 경영의 본질을 추구하기위한 한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논문을 쓰고자 한다.

첫째, 예수의 다양한 메시야적 활동속에서 그의 교육적 측면을 고찰하여 이론적으로 정립한다.

둘째, 위의 이론적 정립은 한국교회가 교회교육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그 원리를 제공코자 한다.

셋째,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사명과 자질 그리고 교육방법을 예수로부터 직접 배우도록 한다.

넷째, 모든 교회와 교육 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새로운 교육적 도전을 주고자 한다.

3. 硏究의 內容

본 논문의 내용은 성경 66편중에서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교육적 측면을 새롭게 이론화 하는 것으로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 부분으로 본 연구제목을 선택한 이유와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방법 및 범위 등을 서술하였다.

2장은 예수가 과연 교육자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으로서

교사로써의 예수의 교사상을 탐색하였으며, 예수의 교사 자질론 고찰과 예수 교육론의 교육목표 파악, 예수의 교육원리 규명, 예수의 교육내용 및 예수의 교육방법 그리고 예수의 교육영역을 살펴보았다.

3장은 예수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가를 고찰하였으며, 4장은 요약및 결론으로 서술했다.

4.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복음서를 분석 통합하여 신학적인 측면을 피하고 예수의 교육적인 측면만을 사실대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썼다.

복음서상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적 부분을 선행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분석 해석하였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예수교육론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신앙과 신학적 식견으로 예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서 그의 교육적 관점을 추론·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예수의 생애중에서 교육자로서의 삶과 사상 그리고 교육적 활동에 한정지었으며 특별히 사복음서의 내용만을 다루어 그 속에서 예수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례(事例)를 제시하여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교육론을 정립하였다.

Ⅱ. 福音書上의 예수 敎育論의 特性에 관한 探索

1. 예수의 敎師 資質論

1) 敎師로서 충분히 준비하신 예수

예수는 나이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公生涯)의 삶을 시작하였다. 30세까지는 철저히 교사로서 준비하셨던 것이다. 즉 예수는 해야할 모든 사업을 위하여 심사숙고 하고 공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사귐을 가지므로 준비하였다.

예수는 교사로서 충분히 준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몇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가 12살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 갔다가 절기를 마친후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슬기와 지혜에 경탄하고 있다.[1)]

또한 예수는 구약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할 정도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유롭게 구약성경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다.[2)]

그는 구약서경에 대해서 친숙할 정도였으며 성경의 풍부한 종교적 경험과 영적통찰력을 자유로이 활용하였다. 그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안에서 살며 성경으로 그 생애를 인도하고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성경의

---

1) 누가복음 2:41-47
2) 마태복음 4:4-10

권위와 중요성을 인정하였음을[3]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17)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는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 나가서 기도와 명상을 통하여 그의 사명과 마음을 이해하였다. 즉 광야에서 사십일을 기도한 후에 빵문제, 명예문제, 권력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진정한 사명은 빵이나 명예나 정치적 권력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적인 삶을 결단하므로 교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다.[4]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는 동물과 식물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과정속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이것들을 교육자료로 사용하였다.

제자들을 전도자로 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내 보내는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마10:16)고 하셨고, 제자들의 삶의 성숙과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중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2-4)고 말씀하시었다.

이와같은 말씀으로 볼 때 그의 동·식물에 관한 폭넓은 식견은 긴 시간동안 익히고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식들이 그의 교사로서의 준비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 본성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말씀하

---

3) Little. J. W., 「Teaching as Jesus Taught」, 안재복 역 「예수의 교수법」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4), p.10.

4) 마4:1-11, 막1:12-13, 눅4:1-13.

시기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5)고 하시었다. 이처럼 예수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의 자원을 가지고 그의 사업에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지능적으로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는 민족적 종교 문헌에 대해서도 정통하였다.[5]

특히 그당시 유대인의 통용어는 아람어였다.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에서 일상적인 언어가 되지 못했고, 오직 회당에서 읽혀졌던 구약성경의 언어로만 사용되었다. 회당에서 조차도 구약성경은 먼저 히브리어로 읽혀지고 난 다음에 아람어로 통역되었다.

예수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4:16)라고 한 말씀에서 분명히 히브리어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과 구약 성경에 관한 철저한 지식을 소유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6]

위에서 살펴본 몇가지 사실들로 예수는 가르치는 교사로서 30세까지 성전에서 혹은 회당과 가정에서 충분한 인격과 지식을 폭넓게 준비하셨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라 하겠다.

2) 선생으로 불리워진 예수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가 선생으로 호칭되어지고 있음을 찾아봄으로 예수의 교사직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될것이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교사의 호칭은 「디다스칼로스」, 「랍비」, 혹은 「랍오니」, 「에피스타테스」, 「노모디다스칼로스」, 등으로서 교사 혹은 선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7]

---

5) J.W.Little, op.cit., p.12.

6) 이창근, 「복음서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천:엘멘 출판사, 1990), p.11.

유대인의 고관(高官)으로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느날 밤 예수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요3:2)라고 예수를 선생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예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 불리워졌다.

첫째로 예수를 선생으로 불렀던 호칭중에 사장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는 "디다스칼로스"였는데 복음서에서만 48회 사용되었고 (요8:4제외) 그 중에서 41회는 예수를 지칭한 것이었으며 예수자신이 직접 29회나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8]

교육학자 Sherrill은 그가 조사한 선생이란 말의 통계를 살펴 볼 때 복음서에서 예수와 관련되어서 "선생"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42회이며 그중 공관복음서(마태,마가,누가.)에서 35회, 요한복음서에서 7회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9]

"디다스칼로스"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서 예수를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의 입을 통해 사용되었다. 즉 바리새인들(마9:11, 눅19:39), 서기관들(마8:19, 막12:32, 눅20:39), 사두개인들(마22:24, 막12:19, 눅20:28), 헤롯당들(마22:16), 율법사들(눅10:25;11:45), 관원들(눅18:18, 마19:16, 막10:17), 세리들(눅3:12)이 주로 예수를 부를 때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자들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막4:38),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했을 때(막9:38, 눅9:49), 야고보 형제의 요구가 있었을 때(막10:35), 예루살렘 성전 붕괴를 예언했을 때(막13:1, 눅21:7)에 사용

---

7) 김대경, 예수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6.

8) 상게서, p,6.

9) L.J.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ian Company, 1969) p.85를 Ibid. p.7에서 재인용함.

하였으며, 이밖에도 반세겔 받는 자들(마17:24), 회당장의집사람(막5:35),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막9:17), 유업을 나눠달라는 사람(눅12:13), 마르다(요11:28)등이 사용하였다.

둘째로 많이 사용된 말이 "랍비"라는 호칭으로 "나의 위대한 분" 혹은 "주인"이란 뜻으로 유대의 유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로 사용되어진 말이다.

이 용어는 복음서에 17회 사용되었으며 그중 14회는 예수께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번은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언급하였으며(마23:7,8), 한번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부르면서(요3:26) 사용하였다.

한편 쉐릴은 복음서에 나타난 랍비의 호칭을 12회(마25:26; 26:49, 막11:21; 14:15; 14:45, 요1:39,49; 4:31; 6:25; 9:2; 11:8), 그리고 「랍오니」의 호칭을 2회(막10:51, 요20:16)로 분류하고 있다.[10] 이 용어는 랍비라는 칭호보다 더욱 존경스런 표현이었다.[11]

Bultmann은 예수께 붙여진 랍비라는 호칭은 곧 예수가 서기관의 무리속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자격 심사에 합격한 학자로서의 의미인데 실제로 예수는 유대교 랍비처럼 살았고 회당에서는 교사의 위치를 확보하였으며(마21:12-13, 막11:15-17, 눅19:45-46, 요2:13-22) 피교육자와 율법을 토의했다고 주장한다.[12]

셋째로 예수를 부른 호칭중에 다른 하나는 "에피스타테스"인데 예수는 이 호칭으로 6번 불리워졌고 5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불리워졌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눅5:5), 풍랑을 만났을 때(눅8:24), 예수의 몸에 손을 댄자를 찾을 때(요8:45), 변화산에서(눅9:33), 주를 따

---

10) Ibid, p.8.
11) 류형기, 「성서사전」 (서울:한국 기독교 문화원, 1960), p.375.
12) Rudolf Bultmann, 「Jesus and the word」, trans.L.P.smith (New york: charles scibners, 1958), p.58.

르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설명했을 때(눅9:49)에 사용되어졌고 1회는 문둥병자들이 사용하였다(눅17:13).

이 말은 "교장 선생님"을 뜻한 말로서 누가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특징있는 헬라어로 이말을 사용하였다.

넷째의 호칭은 "노모디다스칼로스"인데 이 용어는 모세율법의 교사를 가리키는 말로 특히 누가복음에서 사용되었다. 권위와 존경의 의미를 띤 선생으로 예수를 인식하는 말이다.

복음서에는 "가르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표기된 어휘는 모두 61개로 모아지고 있다. 당시에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당원, 대중, 제자들, 개인들까지 골고루 사용하였다.[13]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을 Barcalay는 "이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종종 가르치곤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예수가 교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14]

위에서 몇가지 지적해 본 결과 예수는 교사로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선생으로 인정받고 선생으로 호칭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가진 예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야의 근본된 직능으로 교사를 생각지 않았으나 그들의 전통속에서 교사들은 한결같이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철저히 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아주 엄격히 가르쳤기 때문에 감화력을 줄 수 있었고 그것으로 더욱 존경을 받았다.

예수는 유대의 선생으로 그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위대한 유대의 전

---

13) 상게서, p.9.
14) W.Barclay, 「마태복음 주석 상권」, 천정웅, 「기독교 교육 방법론」(서울:지혜 문화사, 1983), p.16.

통과 일치하였다. 즉 예수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나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들의 개념에 어긋나지 않는 유대 전통속의 랍비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15]

불투만에 의하면 예수께 붙여진 랍비라는 호칭은 곧 예수가 서기관의 무리에 속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자격심사에 합격한 학자(Professor,Learned doctor)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예수는 유대교 랍비처럼 살았는데 그의 생활을 보면 회당에서는 교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주위에 학생들의 써클을 형성해서 그들과 또는 대적들과 혹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논의했다.[16]

Sherrill은 복음서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가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린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교육을 받았으며 회당교육에도 친숙했다"고 말한다.[17]

예수는 구약성경 외에도 많은 히브리 문학과 친밀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 할 때 예수는 평상시에 쓰는 아람어를 쓰지 않고 당시에 계층언어로 구별되는 랍비적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는 그 자신이 학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학자적 언어였다.[18]

Eavey에 의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관습에 따라 안식일마다 두번 예배가 베풀어졌는데, 경배의 말씀선포가 있는 오전예배와 가르치는 일을 주로하는 오후예배가 그것이다. 그중 가르치는 일을 주로하는 오후예배에서 예수는 자신의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19]

---

15) Little J.W., op.cit., p.8.
16) Rudolf Bultmann, op.cit., p.58. 김미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원리" (미간행,장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9.
17) Sherrill L.J., op.cit., p.76.
18) 김미영, 전게서, p.10.
19) Eavey C.B.,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Dodd press,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눅4:15) "……이 말씀은 예수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하셨느나라"(요6:59)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요18:20)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회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마13:54)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말씀속에서 예수는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중시하였으며 교사로서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수는 유대 전통속의 교사로서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의미한다. 그 당시 유대인들 회당은 유대주의를 형성하며 표현하는 실제적인 원동력이었고, 기원전 80년전부터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20]

Horne은 예수가 지닌 교사로서의 권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21]

①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수가 다른 교사들을 따르는 이보다 많았다. ②비록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를 영도하였다. ③예수는 인간이 당면한 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르치고 또한 가르친 그대로 살았다. 다시말하면 개인적인 요구를 사회문제에 적용시킬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다. ④그는 가장 높은 도덕과 영적 진리를 가르쳤다. ⑤그는 교육적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참된 진리를 단순하게 가르쳤다. ⑥그의 증거하신 후로 그가 훈련시킨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전하였다. ⑦그가 가장 높은 동기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 동감, 동정,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 ⑧그는 모든것과 관계되어있는 교

1964), p.78.

20) 김대경, op.cit., p.11.

21) Horne H.H., 「The Master teacher」, pp.202-203. 김대경, 상게서, p.13.

사가 가질 5대 자질을 가졌다. 5대 자질이란 인격적 가치, 적절한 교훈, 학생이 가질 지식과 그의 문제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다.

실제로 예수의 권위는 다른 랍비들이 가졌던 권위와는 다른 것이었다. 마가의 기록은 권위있는 교사로서의 예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막1:22)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 까지 없었나이다"(막7:46)

이러한 예수의 권위는 그의 신성에서 비롯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14:6)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요1:14) 곧 예수그리스도만의 것이었다.

예수의 교훈의 권위에 대해 Edge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22] "그는 수락하거나 믿게하기위해서 옛날의 권위에 호소해야하는 교육을 거부했다. Talmud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랍비A는 말하기를 랍비B는 말한다. 혹은 랍비C는 랍비D의 이름으로 말한다."등의 상투어를 예수의 교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담대히 말한다. "옛사람이 말한바 …… 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5:21-22)

그리고 또한 예수의 교사적 권위는 인간성 통달에 있었다.(마9:4, 막12:15, 요2:25등 참조). 그러므로 자기의 속을 꿰뚫어 보는 예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던게 사실이다.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1:17-18)"라고 묘사하고 있다.

---

22) Edge F.B., 「Theaching for Results」 (Nashville:Broadman press, 1956), p.3.

위와같이 예수의 교사적 전통과 권위는 당시의 다른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고, 진리의 원천이신 자신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권위있는 교육내용이었다.

이것은 새계명의 시작이었으며, 새 질서의 시점, 영시점(零時點)의 도래, 하나의 과정의 정점, 결정적 행위가 요구되고있는 위기의 도래로서 묘사된다고 Dodd는 말한다.[23]

이처럼 예수는 유대인의 위대한 전통이란 틀에 어긋남이 없는 교사요, 전혀 새로운 권위를 가진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교사적 권위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수의 교육자적 모습은 오늘의 태양이 아닐 수 없다.

분명코 예수의 가르침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모든 가르침의 최고봉을 차지한다. 다른 어떤 가르침도 예수의 가르침만큼 충격과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행사하지는 못했다. 어떠한 교훈도 그토록 많은 변화를 자극지키고 그토록 많은 사건을 자아내지 못했다고 Anderson은 말하고 있다.[24]

4) 예수의 敎師的 資質

메시야로 이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교사의 자질이 있었는가?

Horne은 위대한 세계적인 교사가 가져야만 할 본질적인 자질을 5가지로 말하고 예수가 5가지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다.[25]

---

23) Dodd C.H., 「The Founder of christianity」, 한준서역 「예수」 (서울:대한기독교 서회, 1993), p.67.

24) Norman Anderson, 「The Teaching of Jesus」, 박영철 역, 「예수의 가르침」 (서울:요단 출판사, 1988), p.10.

(1)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원대한 비젼.

(2)사람의 마음에 대한 지식.

(3)가르칠 주제에 대한 능통한 지식.

(4)가르침에 대한 적합성.

(5)가르침을 구현한 생활이 곧 그것이다.

예수는 교사로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요10:16)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12:32)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13:33)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른 양들" "모든 사람" "전부" "만민"을 위한 사명자였씀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그는 세계를 포용코져하는 원대한 비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곧 그의 교사적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친히 사람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2:25)

"예수가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마22:18)

"예수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

25) Horne H.H., 「Teaching Techniques of Jesus」, 박영철 역, 「예수님의 교육방법론」(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0), p.226.

말이 참되도다"(요4:18) 등의 말씀들을 참고하여 볼 때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나 마음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밖에도 서기관들이 예수의 중풍병자에게 한 사죄의 선언에 대해 참담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마9:4)고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사람들을 알았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가르쳤으며 또 교훈하였다.[26]

예수가 사람들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않는지, 호의적인지 아닌지, 그의 가르침에 흥미있어하는지 않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구분하여 가르치는 능력있는 교사였다.

셋째로 예수는 그가 가르칠 주제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는 가르칠 주제가 복음이었기에 실제로 복음이었던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역중 구약 성경 20권을 인용하였다. 실제 그의 성경 내용 파악은 자신의 가르침의 안전함과 구약의 부적절함을 대조시킬만큼 잘 되어 이었다(마5:17-48).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여러가지 논쟁적 상황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27]

그리고 예수는 영적인 성품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영혼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다.[28]

넷째로 예수는 가르치시기에 적절하신 교사였다.

어떤 교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됨됨이다. 한가지 본보기가 백마디 권면의 말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철저히 섬

---

26) Price J.M., 「Jesus The Teacher」, 김철호 역, 「위대한 교사 예수」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5), p.21.
27) Ibid, p.18.
28) Horne H.H., op.cit., P.227.

기기를 열망한 선생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순전한 선교 정신을 가졌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다.(마20:28) 피곤하셨지만 타락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의 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겸손해서 멸시받은 세리의 집을 찾아갔으며,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무릅써야 하였다.[29] 또한 가르침에 대한 신념도 대단하였으며, 제자 교육에 정열을 쏟으셨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다.(마28:19-20)

그들은 학문없는 범인들이었으나 능력있는 인물들로 성장하였다.(행4:13)

이와같은 사실들이 예수는 적절하신 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직관적이건, 이해를 통해서건, 그는 교수법을 잘 구사했다. 그는 어떤 특정의 심리학적, 교육학적, 교육기술적 원리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충분히 파악,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분명히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들이었다. 그가 가진 교수자료 중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필요한 절차를 사용 할 수 있었다.[30]

다섯째로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을 생활로 구체화하였다. 그는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겸손하라 하시면서 자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요13:5)

Gordon은 "예수가 그가 행하기 전에 계셨다. 그분은 자신이 가르치신 바 그대로 살았고 그가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영위 했으며 그가 가르친 것들보다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았다."[31]

Hall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닌 여섯가지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말하고 있다.[32]

---

29) Price J.M., op.cit., P.14.
30) Ibid., p.22.
31) Horne H.H., op.cit., P.233.

1) 내부로 부터의 삶.

2) 도덕적인 투쟁.

3) 복잡성과 혼합성.

4) 인간이 가진 것보다 높은 능력 들에 대한 탐색.

5) 항상 전성기를 누리심.

6) 가능한 한 모든 이상들을 실현 시키심 이라고 피력 하였다.

그런가 하면 Plamer 교수는 모든 교사들이 가져야할 4가지 본질은

1) 회생에 적합한 성격.

2) 이미 축적해 놓은 부요.

3) 지식을 통하여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

4) 뭐든지 잊어버리고자 하면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준비 등 이라고 기록하고있다.[33]

이러한 특성들 까지도 예수는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음을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진정으로 예수는 위대한 교사 였다. 그의 신성을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이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예수의 敎育目標

참된 교사는 반드시 전략(strategg)과 전술(factics)을 모두 지녀야 만 한다. 즉 참된 교사는 목표와 그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략이 없다면 전술들이 목표를 갖지 못하며, 전술이 없이는 전략을 성취시킬 수단이 도무지 없다는 말이다.[1]

예수의 사역은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몇개의 짧은 진술

---

32) Ibid., p.233.

33) Ibid., P.233.

1) Horne H.H., op.cit., p.48.

들로서 그의 목표들을 규정짓기는 대단히 어렵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움의 하나는 명료하고도 구체적인 목표이다. 목표가 없다면 구체성, 관점, 의도가 흐려진다. 또 가르침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예수는 의도적으로 가르쳤고 달성코자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1) 救贖의 目標

예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요10:10). 그가 가르친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끊임없이 공포로 고생을 당하고 있으며 욕심으로 정복을 당하고 절망과 죄에 대한 생각으로 억압을 느끼며, 염려로 고생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무지와 미신에 헤매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2)]

그가 그들을 "잃어 버린 것"으로 말할 때 그는 그들이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길에서 방황하고 생명의 참다운 종말을 놓친 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고 민족의 정신적 이상을 간직하지 않은자가 이미 오래되었다. 예수는 이러한 사람들을 길 잃고 헤메는 양에 비교하였다.[3)] 보편적으로 예수의 교육상의 목적은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선포였으며, 구속을 위한 격려이었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양심을 일깨워 주며, 열심과 충성의 불을 붙이는 메시지의 전달이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기를 소식의 전달자라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였던 것이다.(막1:17)[4)]

---

2) Little J.W., op.cit., p.99.
3) Ibid., p.100.
4) Ibid., p.100.

Smart는 예수의 교육목표에 대하여 3가지를 지적했다.[5] 첫째는 복음을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서 전하는 것, 둘째는 제자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충분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 셋째는 제자들을 교육시켜 예수의 복음을 힘있고 광범위하게 전하기 위한 것 등이다.

예수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10:10)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종교적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잃은자를 찾아 구원함을 통하여 예수를 인생의 궁극적인 실패를 막고자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는 생명을 버리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새롭게 살리는 것이 당연히 그의 교육의 1차적 목표였다.

Eavey도 예수의 교육목표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또한 구원받은 신자의 생활이 경건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

이처럼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한 인간의 변화 즉 새 생명을 얻는 근원적 변화로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다. 이것은 인간구원이요 구속이요, 완벽한 변화가 나타내는 목표였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구속은 또 다른 구속을 낳는 연쇄적 복음증거의 교육이었다. 즉 예수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또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도 구원을 받게 되기를 소원하며 가르쳤던 것이다.

---

5) 김찬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사상" (미간행,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26.

6) Eavey C.B., 「Histroy of Christion Education」 (Chicago : Moody Press, 1964), p.78, (김찬배, 상게서. p.26.)

2) 人格的 成長을 위한 目標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구속의 사건 다음으로 즉,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응답의 결과는 바람직한 인격의 성장이다. 예수가도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가르치셨다.

Kent는 예수의 교육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7]

①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굴복하는데서 그들을 구원할 것.

②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휩쓴 정욕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

③ 거만한 세리를 그의 탐욕에서 구원할 것.

④ 거리의 여인을 거의 저항할 수 없게 사로잡고 있는 영향력에서 구원할 것.

이러한 Kent의 주장은 인격성장을 강조한 예수의 교육목적을 바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가 마태복음 5장에서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진리와 올바른 이념과 가치관을 심어주어 그들 자신을 온전하게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8]

예수는 그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고상한 인격과 삶의 기쁨을 이룰 정직, 겸손, 순결, 이타심, 친절 및 희생과 같은 적극적인 미덕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념은 가능한 죄로부터 자유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는 식물인 것 같다고 Price

---

7) Kent C.F, 「Great teachers of Judalsm and Christianty」(천정웅, 전게서, p.40.)

8) 김찬배, 전게서, p.28.

는 말하고 있다.[9]

그리스도인의 인격성장에 대한 예수의 관심을 Little은 이렇게 지적했다.[10]

① 인간의 지적 부요에 대한 관심

② 감정 배양에 대한 관심

③ 올바른 행위의 강조

이러한 주장으로 예수는 전인교육에 몰두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의지적인 인격성장은 곧 인간의 영역을 개발하는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가르침은 현대교육의 전인교육과 현대종교의 영력개발에 그 주안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3) 肉體的 安寧을 위한 目標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은 예수의 사업 중에서 큰 분야로 차지한다. Little은 예수가 관심을 가진 육체적 안녕을 두가지로 말한다.[11]

첫째는, 육체적 질병으로 부터의 구원이다.

둘째는, 인간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는 사역중에 병을 고쳐 주시고 질병을 가져다 준 마귀를 쫓아내었다.[12]

당신의 공적 사역에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 할애한 시간이 상당하였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사역에서 병고치신 일과 귀신들린 자를 깨끗케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8장에서는 5번의 병고친 사건

---

9) Price J.M. (천정웅, 전게서, p.40.)
10) Little J.W. (천정웅, 상게서, p.41.)
11) Little J.W. (천정웅, 상게서, p.43.)
12) 마8:16-17, 마9:32-35, 마1:34.

을 기록되고 있으며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13]"고 기록함으로 예수가 이땅에 오신 목적이 병고침을 위함임을 말하고 있다.

Lange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충분한 값과 짐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에 참여 하여 병의 근원인 죄를 제거한 중표로써 죄를 짊어 지셨다"[14] 라고 했다.

이러한 병고침의 사건은 공관복음 전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예수의 사역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15] 그러나 이러한 사역의 목적이 질병만을 고치기 위함만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키 위함 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9:2) 고 하시었고,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만져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막5:4)고 하셨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는 육체의 병을 영혼의 병과 결부시켜 인간의 전체적인 치료를 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셨다.[16] 그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인간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구제하는데 쓸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과 같다고 하셨으며[17]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실 것이며(마6:33),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막10:29-30)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

---

13) 마 8:17 (이사야 53:4)
14) Lange J.P. (천정웅, 전게서, p.44.)
15) 마 21회. 막 14회 눅27회. 요 4회
16) 천정웅, 전게서, p.45.
17) 마 6:20.

하라고 하셨다.[18] 혹은 백성들이 굶주릴 때 축복하여 5천명을 배부르게 먹이기도 하였다.[19]

이렇듯 예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잘사는 것이 중요함을 친히 가르치셨다. 그러나 육체적 안녕은 성령의 구원을 통하여 이루워 질 수 있음을 교훈 하신 것이다.[20]

4) 生活의 安寧을 위한 目標

예수는 그의 가르침 중에서 인간들의 내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통일되고, 행복과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하고자 하였다.[21]

Curtis는 예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시간 시간마다의 접촉과 대화와 사고등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다.[22] 예수의 가르침은 물질중심의 가르침보다는 생활중심의 교훈에 더 중점을 두었다.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와 상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 했으며, 서로 통일되고, 기쁨이 충만한 제자를 개발 시켰다.

그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또 전부가 일상 또는 순간적 비상사태 때문에 발생하는 접촉, 대화, 사건의 수시적(隨時的)인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부딪치는 구체적인 논쟁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였다. 그는 종교적, 영적, 윤리적 그리고 양심적이란 말같은 일반화된 어휘를 쓰지 않고 특정의 덕성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침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일을 하기에 온전

---

18) 마 6:9-15, 7:7-11. 눅 11.:3.
19) 마 14:3-21, 막 6:30-44, 요 6:1-14.
20) 마 9:28, 요 6:26.
21) 천정웅, 전게서, p.41.
22) Curtis W.A. (천정웅, 상게서, p.41.)

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고 가르침으로 그의 목적은 생활문제에 고정되어 있었다.[23]

예수의 산상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취급한다. 소금과 빛의 생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에 영광 돌리는 생활 성경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일, 형제간의 화목, 간음하지 말것, 살인하지 말것,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의 응답, 행동과 열매등 크리스천의 전반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있다.[24]

특별한 것은 생활의 안녕 자체가 인간 자체의 다듬어진 모습과 그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어 질 때 생활의 안녕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임이 분명하다.

예수에 의하면 인간의 상호 관계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따라 결정되며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느니 만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참다운 지식이 아닐 수 없다.[25] "네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26]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요13:34))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31) 위의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 말로 인간의 생활의 안녕을 위한 원리요. 뿌리요, 핵심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훈련은 이런 말씀들로 생활의 훈련이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육 또한 "예수의 분부하신 것"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되어 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명중 큰 것 하나가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생활화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전체 그리

---

23) Price J.M., 김철호 역, op.cit., p.48.
24) 천정웅, 전게서, p.48.
25) 요 4:34, 5:30, 6:38-40.
26) 막 12:30.

스도인이 예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이세상은 한층 밝고 깨끗하고 명랑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일 것이다.

5) 福音 證據를 위한 目標

예수의 마지막 임무는 그의 제자들을 훈련 시켜 그의 교훈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지구상의 어떤 종교적인 교사들 보다도 많은 숫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짧은 기간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교사들이 되었다.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그 밖의 제자들은 전세계를 향한 말씀의 행진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지구를 감싸고 있으며,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27] 이와 같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훈련과정은 3단계로 나타난다.[28]

첫째로 예수와 제자들간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다.

"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

"그가 열두 제자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막 3:14)라고 하신 말씀에서 처럼 예수는 제자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였다. 함께 먹고, 자고, 쉬고, 함께 웃고, 함께 가고 오고, 함께 고통을 당하며, 동정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삶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다.

둘째로 다양한 상황속에서 광범위한 제목을 다룬 그의 뛰어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다. 그들은 귀중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배웠다. 들음없이 교육이 이루워질 수 없는 것처럼 이들도 말씀을 신중하

---

27) Price J.M., op.cit., p.52.
28) Ibid., p.52.

게 들음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언제든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었다.

세번째로 실습과정이다. 실제로 세례를 베풀게 했고, 12명을 빈손으로 내보내어 복음을 전해 보도록 했으며, 70명을 둘씩 짝지워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실습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그들의 한일에 대해 보고 하게 했고, 지도와 감독을 해주었다.[29] 이렇게 그들은 본보기 교훈 실습을 통하여 익히고 배웠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30]고 하셨다. 분명히 예수는 복음증거의 목적이 그의 가르침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의 최후의 결론이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힘있는 모습들로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고, 이들의 영향은 현대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예수의 이와 같은 교육목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목표들을 무시 해서는 아니 된다.

Horne은 예수의 교육목적을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31]

① 아버지의 뜻과 일을 행하는 것이다.

②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③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얻어 그들을 자신의 증인들로 훈련 시키는 것이다.

④ 형식적인 종교를 실질적인 종교로 바꾸시는 것이다.

---

29) 마 10:5-15, 막 6:7-13, 눅 9:1-6, 눅 10:1-24 참조.
30) 마 28:19-20.
31) Horne H.H., op.cit., pp.48-50.

⑤ 율법을 신화적 편만한 새로운 세계적인 나라속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⑥ 생명의 길로 모범을 보여 주시고 또 교훈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다.

⑦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을 활성화 시키시는 것이다.

⑧ 인종적인 차별의 구속을 깨뜨리는 것이다.

⑨ 어두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혼의 주장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의 교육 목표가 현대 기독교 교육의 큰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예수의 敎育原理

교육원리란 말은 교육활동의 기초인 교육목표의 설정,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수, 학습지도, 교육평가 등의 여러 측면의 이론을 종합해서 붙여진 이론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예수교육의 몇가지 원리를 찾아 보고져 한다.

얼핏 보기에 예수의 가르치는 사역에는 어떤 특정한 원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의 가르침 속에는 실질적인 교육원리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교육원리를 몇가지로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觀察의 原理

예수는 그를 돕는 자들을 선정할 때 오랜 관찰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서 그 제자들을 분별하되 동

역자들이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분별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고, 현재의 구비조건만을 참조하지 않았다.[1] 그들을 깊이 관찰하여 그의 속과 영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셨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의아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2] 이와 같이 예수는 사람을 깊이 관찰하는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충동적이며 급진적이면서 행동의 변화가 심한 시몬에게서, 강하고 담대하며 용감한 성격을 보시고 그에게 반석이라 하셨고, 젊고 동정할 줄 모르는 우뢰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요한에게서는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보시고 "사랑 받는 제자" 라고 불리울 수 있게 하셨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작은 협잡꾼 유태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는 보통사람을 넘는 자비로운 성숙의 사람으로 보았다. 대중은 마태를 멸시받아야 할 세리로 보았지만, 예수는 영원히 살아남을 책의 저자로 보았다. 마치 화가가 백지위에 그려질 그림을 미리 볼 수 있듯이, 조각가가 거친 돌 속에 미래의 석상을 보듯이, 예수는 제자속에서 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낙관적이고도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타날 성격을 보았다.[3]

그의 관찰의 원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인정하였다. 그러했기에 그의 가르침은 힘이 있었고, 듣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었다. 적어도 열두 제자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

1) Price J.M., op.cit., p.55.
2) 요한복음 1:47-49절 (표준 새번역)
3) Price J.M., op.cit., p.56.

예수는 또한 이상을 주고, 태도를 형성하고, 습관을 기르는 일이 시간을 소요하는 일인 줄 알았기에 인격 형성을 하는 임무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다.[4]

Babcock은 "좋은 습관은 생일날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격은 새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야가 밝아져오고 꿈은 사라지고 심장은 새로운 감동으로 뛸지 모르나 이는 산꼭대기에서 갖는 경험일 뿐 시험을 통한 승리는 산밑 평지에 내려가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5]

이러한 사상의 교육원리는 예수가 비유로 가르치신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트고 이삭이 나오고 알곡이 영그는 과정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6] 베드로에게 그의 새끼양을 먹여 큰 양으로 기르라는 분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7]

분명히 예수는 미래적 관찰의 원리를 가르침과 훈련과 교훈의 바탕으로 삼았으며, 이과정을 통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지는 결과를 읽고 있었다.

2) 接觸의 原理

교육학적 측면에서 예수의 교육의 내용구조는 율법도 아니었고, 사회개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교육과정과 현장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비공식적인 현장과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회랍 철인들이나 팔레스타인의 랍비들처럼 아카데미회당과 같은 공

---

4) Ibid., p.56.
5) Ibid., p.56.
6) 마 4:28.
7) 요 21:15-17.
8) 김미영, op.cit., p.75.

식 학원을 열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오히려 제자들의 생활 한 복판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대화하셨고, 부르셨고, 가르치셨다. 이처럼 예수의 강조점은 개인적 접촉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그의 생애는 개인들 또는 제자들이라고 지적된 집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 예로는 4-5천이나 되는 군중들과도 상대하였다. 그는 이들을 동정하였고 이들과 말하고 먹이고 치료해 주었다.[9]

그때마다 그는 일정한 교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당면한 상태와 그 마음속에 품은 목적과 방법에 준해서 무엇이든 그 순간에 가장 잘맞는 절차를 사용하였다.[10]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육이 출발되었으며 그들의 경험과 신앙상태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접촉의 원리이다.

첫번째로 예수는 언어에 대한 수준 높은 기능으로,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생활 언어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학자들에게는 학자적 언어로 변론하며, 논중하시었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주로 비유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그림을 그리듯이 가르침으로써, 듣는 사람이 그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11]

Horne은 예수의 비유들의 소재를 분류했는데, 사물들을 소재로 한 비유가 16개, 식물들을 소재로 한 것이 7개, 동물들에 대한 것이 4개, 사람들을 소재로 한 것이 34개 라고 밝혔다.[12]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의 청중들이 생활 주변에

---

9) Price J.M., op.cit., p.58.
10) 이규호, 「앎과 삶」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p.182 (김미영, 전게서, p.76.)
11) 김미영, 전게서, p.76.
12) Horne H.H. (상게서, p.77.)

서 늘 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상의 일들을 소재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예수는 청중들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므로 그것으로 접촉의 원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예수는 집에서 회당에서 또는 산이나 바닷가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형식을 떠나 제자들의 관심과 필요를 찾아 가르쳤다.[13]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율법사의 율법(눅10:25-26)을 물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악한 여자에게 그는 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생수"에 대해(요4:10) 말하게 하였다.[14]

청중의 입장, 청중의 필요를 찾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교육 이것이 예수의 교육이었다. 이것은 "통각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새 지식을 얻은 것이며,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에로 진행한다는 것은 가르쳐야 할 진리도 이미 알려진 진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이 법칙을 예수는 기능적으로 잘 사용하셨던 것이다.[15]

이렇게 예수는 인간의 흥미와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것에 근거한 교육의 출발은 청중들의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Edge는 "학습의 원리는 그 학생의 처지에서 시작해야 한다"[16]는 교육적 원리를 주장하였다. 교사는 반드시 학생들의 필요에 공감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예수는 그 실

---

13) Price J.M., op.cit., p.59.
14) Ibid., p.60.
15) Ibid., p.60.
16) Edge F.B. (Ibid, p.78.)

제적 교육현장에서 이미 실행하셨던 것이다.

세번째로 영적인 필요가 또한 예수교육의 접촉의 원리였다. 예수는 그가 만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가장 민감 하였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의 영적 기갈 상태를 아셨다. 마태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부자청년을 만났을 때 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순전히 영적인 것이요, 구원의 문제요,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그의 교육적 접촉점이었다.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학습목표로 잡으시고 그에 적합한 절차를 밟으셨다.

이 접촉의 원리는 곧 목적 설정과도 연결된다. 인간의 육적 영적 필요에 의해 시작하시고 그들의 생활언어로 가르치셨던 예수의 교육활동을 기독교 교육의 독적 설정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할 사항이다.[17]

이순한 교수는 교수의 법칙에 대한 존 밀톤 그레고리의 저서를 참고하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18]

첫째, 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둘째,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다.

세째, 학생들의 능력에 알맞는 공과 선택과 학습방법을 택하여 사용하는 일이다.

넷째, 학습 활동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교수법칙은 예수의 교육원리인 접촉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철저하게 학생중심의 교육이 예수의 교육이었다. 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영적 환경에서 시작하신 예수의 교육원리가 오늘날 기독교 교육 연구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영역의 타 학문들 즉 행동심리학, 그룹이론, 사회심리학, 종교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

17) Ibid., p.80.
18) 이순한, 「성서교수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p.66.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生活化의 原理

교육의 가치는 생활화에 있다. 교육자체가 생활로 연결되어질 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로서의 예수는 다양한 교육 속에서도 그 스스로 항상 학습목표와 세분된 진행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Eavey는 주장한다.[19]

그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올바른 이상을 형성하며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의 추구하는 목표였다는 것이다.[20]

그가 사용한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끌어 온 말이었고 그의 대화는 청중들이 평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며, 그의 가르침의 주제는 실제 생활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21]

그것은 쉽게 말씀을 이해하여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화의 원리이다.

Weigle은 "가르침은 학생이 배우려는 의욕을 일으킬 때에만 성공한다"고 말했다.[22]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치는 동안 고요히 앉아있기만 할 필요는 없다. 3가지 주기 운동이 필요하다. 즉, 두뇌적인 지식, 감정적인 흥분, 이지적인 반응이 그것이다.

---

19) Eavey C.B., op.cit., p.79 (김미영, 전게서, p.81.)
20) Ibid., p.82.
21) Ibid., p.82.
22) Price J.M., op.cit., p.66.

학생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실제 실습 함으로써만이 안다. 구제의 기쁨도 줌으로써 안다. 그래서 이야기식 강의식 시각 보조 재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은 행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운다.[23]

이 생활화의 원리를 예수는 철저하게 인식했고 실제로 사용하였다. 이미 마련해 놓은 해결책을 주기보다 그들 자신들의 자료들을 이용토록 예수는 촉구했다. 이 원리를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는 이를 알리라"(요7:17) 고 말씀하셨다.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자는 모래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므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24]

마태복음 25장14절이하의 달란트 비유의 중심점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는 더욱 개발시키나 사용치 않으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씨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에 대한 반응이라고 가르쳤다.[25]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대신 세례를 주도록 했고(마28:20), 가르치는 일과 병고치는 일을 하도록 내보내셨다.[26] 제자들은 벳세다 들녘에서 5천명에게 음식을 먹도록 떡을 나눠주라는 명령을 받았고[27],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부탁을 받았었다.(요11:39) 실로암 못가에서 소경을 보기전에 눈을 씻어야 했으며[28] 부자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명령받았다.[29] 이러한 행동들은 "일어나라" "오라" "따르라" "가라" "씻으라" "하라" "드리라"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먹이라" 등이다. 분명히 그의

---

23) Ibid., p.66.
24) 마태복음 7:24-27, 눅 6:47-49.
25) 마 13:1-9, 막4:1-9, 눅8:4-8.
26) 마 10:5-11, 막 6:7-13, 눅 9:1-6.
27) 마 14:13-21, 막 6:3-44, 눅 9:10-17, 요 6:1-14.
28) 요 9:1-12.
29) 눅 6:43-45 참조.

가르침을 듣고 느끼는 것은 물론 사고와 행동의 복음이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행위가 말씀에 복합되어 선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30] 이와같이 예수의 교육은 생활에 강조점을 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구조학습」 그리고 『발견학습』으로 이론화 되어있다.

구조 학습이란 교과와 교재라는 구조를 앎으로써 그 분야의 학문에 포함된 여타의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31]

Burner는 구조 학습에 있어서 강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32]

① 기본적인 것(지식의 구조)을 이해하게 되면 교과를 쉽게 이해하게 된다.

② 낱낱의 사실들이 구조화된 전체의 패턴가운데 지워지지 않으면 재빨리 잊어버린다.

③ 기본적인 원리나 아이디어의 이해는 적당한 훈련의 전이를 낳게 하는 통로일 것이다.

④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그의 기본적인 성격의 관점에서 부단히 음미해 보면 고등지식과 초보지식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요컨데 지적 성장을 도모하거나 지식을 단순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지식의 구조화이므로 이것이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3]

예수도 지식의 구조화된 체계로 전달하심으로써, 그의 청중들이 학습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기억을 오래 지속시키며 미지의 상황이나 연관된 상황에도 쉽게 전이하여 생활화 하도록 하셨다.[34] 또한 발

---

30) 유봉호, 「현대교육과정」 (서울:대방출판사, 1982), p.264.
31) 유봉호, 상게서, p.264.
32) E.Burner (김미영, 전게서, p.84.)
33) 상게서, p.85.

견학습이란 학습자들을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로 하여, 스스로 지식 내용을 깨달아 가게 하는 학습이다.[35]

이 발견 학습의 이점과 효능은 3가지로 들 수 있다.

① 학습자들의 지성적인 능력을 증진시킨다.

② 비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이 되게 함으로써 학습에 기여한다.

③ 사장된 지식이 아니라 재생에 활용되는 기억이 성립된다.[36] 는 것인데 예수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견학습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스스로의 눈으로 본질적이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문제의 핵심을 향해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

바리새인들의 세금에 대한 질문에 즉각 대답하시지 않고 데나리온을 내어 보이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고 과정을 도왔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37]

이렇게 예수의 교육은 생활화의 원리, 즉 듣고 깨닫고 결단케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직관적 사고를 경험케 하는 것이었다.

4) 共同體의 原理

예수의 사역중 공동체적 교육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 12제자와 70인의 그룹을 형성하여 이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협력과 공동 활동으로 훈련을 시켰다. 이들을 복음증거의 책임자로서의 훈련과정에서 둘씩 짝을 지어 세상에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있다.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자들과의 소그룹과 70인의 그룹은 예수의

---

34) 상게서, p.85.
35) 상게서, p.87.
36) 상게서, p.87.
37) 마 22:15-22, 막12:13-17, 눅 20:20-26.

교육원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동체가 현대 교회로 발전 혹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人間과 맺은 구속적 친교가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는 코이노니아(Koinonia : Communion)라고 말한다.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모든일에 참여하여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38]

예수는 12제자들이나 70인의 제자들이나 그 밖의 청중들까지 한결같은 하나님나라의 공동체로서 이땅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소원하셨다. 이 사명을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담당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만한 의사소통과 깊이있는 사귐과 교회의 연합운동이 체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9]

.Sherrill은 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를 기독교 공동체 자체로 보았으며,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만남을 통한 인간 실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40]

예수가 스스로 제자들과 청중들과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인간 실존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래서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였다.[41]

Schleier macher은 "윤리학적 예술로서의 교육은 성장세대와 기성 세대 사이의 교육 활동으로 부터 출발한다. 기성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 가능력을 최대한으로 키우고 동시에 일정한 공동 생활권이 요청하는 도덕적 견해들과 태도들을 가르쳐서 대인의 본성과 잠재능력을 양

---

38) Miller R.C., 「Christian Nurture And the Church」 (서광선·박형규 공역, 「기독교 교육과 교회」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5), p.27.
39) Ibid., pp.108-223 참조.
40) 백용희, 「쉐릴의 공동체 교육」 (서울: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0), p.18.
41) 마 16:21-28, 막 8:31-9:1, 눅 9:22-27.

성하고 개인의 도덕적 생활세계안으로 도입하는 일이 교육의 과제이다" 라고 했으며, 그는 교육을 역사적 공간안에서의 책임성 있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식했으며, 교육이론을 전체적으로 기성세대가 성장세대와의 관계에서 형성하고자하는 기초위에 형성시켜 갔다.[42]

이것은 신앙과 삶의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예수의 공동체의 교육원리는 신앙이요, 삶의 현실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교육을 추구했기에 서로 사랑하고 (마19:19) 서로 섬기며(막9:35) 화목한(마5:24) 삶을 강조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는 중요한 요건이어서 용서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43]

마태복음 6:15절에서는 "저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은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하나님과 성령안에서의 교제요 용서임을 분명히 하신 말씀이라 하겠다.

현대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 교육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구속적 친교 그리고 인간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의 구체적 상황이 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5) 弟子化의 原理

예수는 사역 전반에 걸쳐 제자양육에 심혈을 기우렸다. 전반적인 교육자체가 제자를 육성하는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

42) 오인탁, 「슐라이엘 마허의 교육철학」 (신학사상 20집), p.133.
43) 막 18:11-35.

그러니까 사역초기 즉 어떤 복음운동을 일으키시기 전에 또 대중앞에서 가르침을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는 먼저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순간(승천의 순간)에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마28:20)

곧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자하는 예수의 선교 과정이요 대상이었다.[44]

예수의 제자들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2제자요[45], 둘째는 72인의 제자요[46], 셋째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47]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실질적으로 예수는 특별히 제자로 뽑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증거하는 제자화를 꿈꾸었다.

예수는 기도하시고 복음증거의 주역으로 삼고자 택하신 제자는 12명이었고, 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시며 주력을 기울여 이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있어서 먼저 택하시기는 하였으나 서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다렸으며 또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택하시지 않으셨다.[48] 사실상 그는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 각 개인들과의 만남을 가지셨으며 그 만남을 통해 각 개인들의 말씀에 대한 응답들을

---

44) 임태년, "예수의 교육원리" (미간행, 서울침례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32.
45) 눅 6:13.
46) 눅 10:1.
47) 눅 17:37, 요 4:1, 6:60, 67.
48) 임태년, 전게서, p.33.

관찰하였다.[49] 그러므로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각성과 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셨으며 그를 좇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눅5:11) 일어나(막2:14) 예수와 같은 생활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셨다.[50]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문자적인 뜻대로 그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51]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제자는 자기 소유와 부모등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까지도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52] 실제적으로 12제자는 그러했다. 가족 등 직업까지도 버리고 예수를 좇아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다.[53] 그러나 72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그를 믿는 모든 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2제자에게 "누구든지 나를 다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마16:24)고 말씀하신 것은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 모든 신도들까지를 통틀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제자들로 성장하며 당신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소원하며 기도하며 요구하셨던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가르쳤던 그의 교육은 제자화의 원리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6) 人間化의 原理

Russell은 기독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49) Allen Haandidian, 「Sucessful Discipling」, (Chicago:Moody Press, 1979), p.82 (상게서, p.33.)
50) 눅 9:57-62.
51) 천정웅, 전게서, p.222.
52) 상게서, p.222.
53) 마 4:19-22, 막 1:16-20, 눅 5:1-11.

"기독교 교육이란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참 인간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설교의 과업에 참여케 하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자신도 참여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다."54)

인간화의 원리는 첫째로 약속안에서 참인간이 된다는 의미는 자유하는 인간,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직시하는 인간이라는 전제이다.

둘째는 삶 전체를 신의 선교의 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간화가 그 장이 되어지는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대화와 참여의 교육이여야 한다는 전제이다.55)

Freire에 있어서 교육이란 "인간을 주역화 하고 세계에 참여케 함으로 그 세계를 역사화 시켜 인간과 세계를 보다 더 인간적인 세계로 창조해 나가는 공동작업이라고 풀이된다"고 했다.56)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존재의 물음을 모든 차원에서 토의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여 변혁시키고 창조하도록 힘을 주시는 구원과 참자유의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57)

Simon은 예수는 인간주의 교육자다, 라는 소론을 시작하면서 그 글의 제목을 "예수는 인간주의 교육자였다"라고 과거로 하지 않고 현재적으로 하고 있다. 즉 예수는 현재로 우리 마음속에서 인간주의 교육자로 존재한다. 그는 오늘의 인간을 통한 통합자요 영감자요. 슬기로운 충고자요, 인도자다. 시대의 첨단적 순간들 마다에서 모든 다원화된 차원들에 걸쳐서 교육을 보다 인간답게 이루도록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

---

54) Russel L.M. (은준관, 「교육신학」 기독교서회, 1976), p.25.
55) 김미영, 전게서, p.92.
56) 상게서, p.93.
57) 상게서, p.93.

라고 했다.[58]

예수는 동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질문과 응답의 상황아래 섰을 때에, 자신의 메세지의 중심 주제가 무었인지를 천명하도록 요청 받았다. 교육자로서 그가 언명한 많은 교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이였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인간은 모든 자원 (마음·생명·의지)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언명하고, 다음으로는 "네 이웃을 네몸처럼 사랑하라"(마 22:34-40)고 자신의 교육을 정리 하였다.[59] 예수는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일은 매우 기본적인 중요성을 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랑"과 "수용"은 타자에 대한 우리의 관계성을 결정짓는 제일요소라는 것이다.[60] 이와 동일한 언급들을 인간주의 심리 학자인 Rogers나 Maslow도 즐겨 사용했으며 자랑으로 여겼다[61]

예수는 인간화 교육을 인간들이 마땅히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임을 각자 지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예루살렘성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한 병자의 기사에서 입증하고 있다. 18년간이나 중병을 앓아온 이 병자는, 기적의 연못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 그에게 돕거나 그를 돕도록 권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도록 요구 하고 있다.[62] 이로써 이 병자는 생의 변화를 경험했고 그의 인생은 긍정적·실현적 삶이 되었다.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가장 효과 있게 촉진하는 모든 변혁의 영역과 상황의 창출이 심리학자 James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바람직한 변화

---

58) Simon S.B., (정웅섭, 「현대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기독교 서회, 1991), p.16.
59) 정웅섭, 전게서, p.15.
60) 상게서, p.15.
61) 상게서, p.15.
62) 요 5:1-9.

란 인간들이 책임 있게 ① 일과 노력을 즉시로 시작하며 ②의욕적이고 의미 있게 시작하며 ③예의를 허용치 않을때 가능하다는 것이다[63]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형상을 잃고 (롬 1:23, 3:23) 비 인간화 되어 가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교육도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화 교육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수는 인간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 하였는가?

첫째, 그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이상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축하잔치를 베풀지 못하게끔 형식화 문자화 되었고, 종교지도자들의 그릇된 성서 해석으로 인간을 비인간화 시키고 있었음을 직시하고, 말씀(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찾으며, 말씀이 인간의 삶속에 들어가 생명력을 갖는 말씀으로의 인간화 교육이었다.

둘째, 예수는 인간의 현실과 그대로의 상황과 생활을 학습의 장으로 삼았다.

셋째, 당시 유대교육이 암기, 주입식에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예수께서는 대화와 참여의 원리를 통해, 백성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도우셨으며 계속적 변화를 약속하셨다.

넷째, 예수자신의 인격이 인간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섯째, 인간의 죄로부터의 해방이 人間化 교육임을 주지하셨다.[64]

예수는 계속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65]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66]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고 참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

63) 정웅섭, 전게서, p.16.
64) 김미영, 전게서, p.94.
65) 요 8:36.
66) 요 3:16.

위한 노력과 심혈이 예수의 人間化 교육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중심은 "인간회복"이었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간 창조라는 측면에서 강조됨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다.[67]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68]

4. 예수의 敎育內容

예수의 교육내용은 참으로 다양했다. 인간이 그의 삶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가 그의 교육 내용이었으며 한사람의 종교인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야 할 모든 것이 교육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그의 교육내용중 특별하며 중요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교육내용을 대표 할 만한 몇가지 만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舊約 聖經

예수는 구약성경 전부를 가르쳤다고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인용하시었고, 항상 구약성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Piper는 복음서에 예수가 인용한 구약성경의 내용은 총21권이고, 구약성경을 직접적으로 38번 인용하였으며,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4번 인용하였고, 구약성경과 병행하는 내용을 50번 사용했다고 주장했다.[1]

특별히 예수는 구약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달하신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담아 가르쳤으며 독창적이고 자유롭고도 독립적으로

---

67) 정웅섭, 전게서, p.25.
68) Ibid., p.26.
1) Piper D.R., 「How Would Jesus Teach」, p.49 (천정웅, 「기독교 교육방법」 p.26.)

구약성경을 가르쳤다.[2)]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나 율법자체와 그것의 문자들을 극히 자연스럽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정신으로 대체시킴에 있어서나 그가 가르치신 내용대로 사셨다는 사실이며 자신이 성경을 완성시키는 자이며, Messiah이심을 주장하는 것 모두가 독창적이고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가르침 자체가 신약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였다고 헤르만 호은은 주장하고 있다.[3)]

이와같이 예수가 구약성경을 사용한 목적은 사탄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전위를 보이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와 질문을 일으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의의 훈련을 하고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4)]

또한 Wiegle은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확실한 재료의 체계는 갖지 않았다 할찌라도 오히려 그의 학생들이 관계를 맺고 있던 실제적인 환경과 상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던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5)]라고 지적하고 있다.

Price는 예수가 구약성경을 사용한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6)]

첫째로 자신의 교육 내용을 성경으로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그는 먼저 구약성경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자신의 가르침으로 확대시키고 완성시켜가고 있다.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할 때 먼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신 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강조하였다.[7)] 간음

---

2) Horne H. (박영호 역), op.cit., p.129.
3) Ibid., p.134.
4) Lebar L.E. (천정웅, 전게서, p.266.)
5) Weigle L.A., 「Jusus and the Educational method」, (상게서, p.267.)
6) Price J.M. (상게서, pp.267-270.)

에 대해서도 모세율법에 간음치 말라고 하였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쳤다.[8]

둘째로 자신의 교육내용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들과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사람이 제도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마12:4)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12:5)고 구약성경을 인용하였다.

셋째로 자신의 교육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가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고 그곳의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마21:13)라는 성경을 인용하므로 자신의 가르침을 더욱 힘있게 강조하였다.

Horne은 예수가 구약성경을 가르치신 것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9]

1) 예수는 구약성경에 대한 한 분의 권위 있는 주석가이셨다.

2) 예수는 그의 사고방식의 보편적인 용어정도로 구약성경에 심취해 있었다.

3) 예수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의 권위를 자신의 가르침을 위하여 활용 하였으며, 자신이 행한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과 가능한한 밀접하게 연관을 지었다.

4) 예수의 가르침에는 어느 곳이건 구약성경의 정신이 미치지 않는

---

7) 마태복음 5:21-48.
8) 마태복음 5:27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에서 인용)
9) Horne H. (박영호 역, op.cit., pp.135-136.)

곳이 없으며 완전히 구약성경의 언어들로 채색되어 있다.

5) 예수는 구약성경의 영적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켰다.

6) 예수는 구약성경 계시 내부에서 일어났던 계시의 발전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7) 예수는 구약성경을 자신의 영적 생활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8) 예수는 구약성경을 불멸화시켰다.

9) 구약성경이 예수의 모든 실천과 행위들을 규정 짓고 인도하였다.

10)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이 제자 됨을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구약성경은 폐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는 구약성경을 사용한 방법 또한 다양하다. 여기에 대하여 H. Horn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10]

첫째로 직접적으로 구약성경을 사용한 형태이다. 예수가 구약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11] 고 말씀하신 형태로서 33번이나 사용되었다.[12]

둘째로 간접적으로 구약성경을 사용한 형태이다. 이런 형태는 레위기 14:2-32절을 마태복음 8:4절에서 사용한 것 외에 25회 사용되었다.

셋째로 어느 성경에서 인용하셨는지 그 출처를 명확히 찾기가 어려운 형태이다. 즉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 26:54) 등의 말씀처럼 사용된 부분이 8번이나 나타난다.[13]

넷째로 구약성경에서 비슷한 구절을 근거로 하여 설명을 확대시킨 형태이다. 이사야 61:2절의 "모든 슬픈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을 마

---

10) Ibid., pp.124-137.
11) 신명기 8:3을 마태복음 4:4에서 사용
12) 천정웅, 전게서, pp.270-273.
13) 상게서, pp.275-276.

태복음 5:4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인용한 형태로서 5번이나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구절들이 약40여개나 더 있다고 호온은 주장하고 있다.[14]

다섯째로 예수의 독창적인 구약성경 사용형태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마5:44)는 등의 독창적인 형태로서 10번이상 사용되었다.[15] 이처럼 예수의 교육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구약성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는 말씀 자체이었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말씀을 인용하여 교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였다.[16]

2) 하나님 나라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 및 교육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이 용어가 복음서에 일백번 이상 사용되었다.[17]

공생애 사역의 첫 말씀이 "때가 찾고 하나님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고 하였을 만큼,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하였다.

눅4:43에 보면 예수는 그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천명했고, 그래서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비밀"로 불리운다.[18]

그 안에 신약성경 전체의 Kerygma가 요약되어 있는 복음서는 제일

---

14) Horne H.H., op.cit., p.131.
15) 천정웅, 전게서, pp.277-278.
16) 상게서, p.279.
17) 이상근, 「마태복음 주해」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5), p.19.
18) 이창근, 「복음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예수그리스도」 (인천: 엘갠출판사, 1990), p.44.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다.[19]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살펴 보는 일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1) 어원적 고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란 영어의 번역이며 헬라어"헤 바실레이아 투데우 톤 우라논"의 번역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배하는 곳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관념에서 발달한 신약의 용어인데 반드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나 이 땅이나 하나님이 통치자로써 군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20]

이 용어는 예수가 가르치신 창조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대망이며 구약의 예언이었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어 장래에 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미래적 통치자가 메시야라고 불리워졌다. 이 왕국은 구약성경 다니엘과 이사야를 통해서 잘 예언되어 지고 있다.[21]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는 말쿠드", 아랍어로는 "멤라카"이다. 이 단어들의 뜻은 통치를 가리키는 동시에 영역과 및 그 영역에 포함된 백성을 지칭한다. 또는 「다스린다」는 뜻이다.[22]

이런 의미에서 초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보았으나 그 본연의 뜻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 크고 광대한 우주적 나라의 개념임이 틀림없다.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용어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마:6:33), 「하늘 나라」, 「주의

---

19) 상게서, p.44.
20) 정인찬, 전게서, p.256.
21) 다니엘 2-7장,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
22) 천정웅, 전게서, p.282.

영광」(마10:37), 「아버지의 나라」(마13:43), 「나의 나라」(요18:36), 「당신의 나라」(마6:10), 「너희왕국」 단순한 「나라」 혹은 「천국」 등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그 의미와 뜻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므로 그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했던 것이다.[23]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적 이라기보다 정치적, 물질적,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께 요구했던 사건(마20:20)이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행1:6)라고 질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정신적이며, 종교적이며 영적인 개념이었다. 그것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요18:36)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안에 있느니라" (눅17:21)고 하신 말씀들로 알 수 있다.[24]

분명히 예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영원한 세계요, 시공을 초월하며 인간의 심령에 임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한정적인 지역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하는 의미의 나라이므로 그때 그때마다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졌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25]

---

23) 상게서, p.282.
24) 김대경, 전게서, p.19.
25) 상게서, p.20.

(3) 하나님 나라의 성질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로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막1:15)"고 선언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달라졌기에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해석을 역사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① 비종말론 학파

19세기의 자유주의 절정기에 나타난 학파로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서 발견되는 종말론적 껍질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이 종말론적 요소로 덧붙였다고 가정했었다.[26]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은 Adolf Harnack이었다. 그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유대교 묵시주의로 부터 물려받은 종말론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알멩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의 마음내에서의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의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27]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원리의 존재, 곧 인간의 마음 내에서의 하나님의 현재적인 내면적 통치였으므로 그의 가르침 속의 종말론적 요소들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내향적 통치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28]

② 철저적 종말론 학파

---

26) Stein R.H., 「The method and message of Jesus Teachings」 (유재덕 역, 「예수님의 교훈내용과 그 방법」, 서울:할렐루야 서원, 1994), p.109.
27) Ibid., p.110.
28) Ibid., p.110.

1882년에 Johannes Weiss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교훈」을 펴냈고, 1906년에 Albert Schweitzer의 「역사적 예수연구」가 발표됨으로써 예수의 교훈내의 종말론적 요소는 그의 가르침의 부수적인 요소로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29]

이들의 견해가 "철저적 종말론"으로 불리워 지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여 가까운 장래에 시작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를 가리킨다.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역사에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적 실체라는 주장이다.[30]

③ 실현된 종말론 학파

대륙과 특히 독일에서는 철저적 종말론이 우세한 반면 영국에서는 Dodd의 작업으로 "실현된 종말론" 학파가 생겨났다.[31]

다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미래적 출현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내에서의 현재적 실재였다. 그러기에 그의 가르침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성취되지 않는 미래적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2]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각기 다른 주장들이 난무한 가운데서도 전통적으로 흘러오며 주장되어온 성경해석의 큰 물줄기는 여전히 큰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2가지 성질을

---

29) Ibid., p.110.
30) Ibid., pp.111-112.
31) Ibid., p.112.
32) Ibid., p.112.

이해해야 한다.

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복음서에는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는 곳이 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1:14-23)[33] 이 말씀에서 예수는 귀신을 축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수의 주장을 볼 수 있다.[34]

누가복음 7:18절 이하에 보면 [35]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했을때에 예수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그의 선포로부터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발견하게 된다.[36]

나. 하나님나라의 미래성

예수의 가르침속에서 하나님나라의 미래성을 나타내는 말씀은 많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눅 11:2)"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대로 지상에서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에 하나님의

---

33) 마 12:22-30, 막 3:20-27 참조.
34) Stein R.H., op.cit., pp.113-114.
35) 마 11:2-19 참조.
36) 이창근, 전게서, p.46.

종말론적 통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따라서 하나님 이름의 성화와 그의 왕국의 도래에 대한 기도형식의 가르침이다.[37]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마 7:21-23)"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날에」 즉 심판날에 일어나는 일로서 그 때는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다.[38]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한 미래적인 관점을 예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치유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사역속에 임했음을 가르치고 있다.[39]

또한 눅 16:16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에서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세례요한 까지요, 이후에 시작되는 시대는 하나님나라의 시대로 서술된다. 과거에는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마 11:11), 이는 요한이 여전히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된다.[40]

마가복음 2:21-22에서도 구약성경의 유대교는 낡은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구약성경의 종교는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었다. 구원사의 두번째 시대가 임했으며 그것을 낡은 질서속에 담아두

---

37) Stein R.H., op.cit., p.120.
38) Ibid., p.120.
39) Ibid., p.114.
40) Ibid., pp.114-115.

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임했다.[41]

예수는 자신의 사역속에서 "그날"(렘 31:31-33)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며 열두 제자들을 부름으로써 이때가 임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 11:28)[42]. 눅 17:20-21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안에 있느니라"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진술이며, 따라서 이것은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43]

예수가 가르치신 비유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더 확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겨자씨 비유[44], 열처녀 비유[45]에서 볼 수 있는 종말론적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그리고있는데도 Dadd는 그것들을 하나같이 현재적 실재로 설명하려 든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46]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할 때 가라지를 모아서 불사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고, 결혼잔치 비유도[47]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초대받지 않은 객이 어두운 밖으로 쫓겨나 그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부록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48]

씨뿌리는 비유[49]에서도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되어지는 과정이

---

41) Ibid., p.115.
42) Ibid., p.118.
43) Ibid., p.119.
44) 마 13:3, 막 4:30-32.
45) 마 25:1-13.
46) 마 13:24-30.
47) 마 22:1-10.
48) Stein R.H., op.cit., p.122.

하나님나라의 미래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메시야의 재단에서 돌연히 실현될 것이며 그 시기는 성부만이 아신다.(마 24:36)[50]

결론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성격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가 메시야로서 오심과 함께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일면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므로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영원한 모순적 진리임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51]

(4) 예수의 교육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예수가 가르치신 교육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52]

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다.

예수가 가르치신 「하나님나라」는 의로운 곳이며,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마 5:20)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자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세칙을 만들어 하나님앞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였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하며 이러한 의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행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

---

49) 마 13:1-9, 막 4:1-9, 눅 8:4-8.
50) 이상근, 전게서, pp.19-20.
51) 김대경, 전게서, p.21.
52) 천정웅, 전게서, pp.289-290.

물로서의 의를 주장했다.

②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야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즉 하나님나라의 도래는 질병과 광기가 죽음과 죄의 사슬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귀신의 패배였다. 이러한 기적을 가져온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나라의 시작이었으며 현재적 실현이었다.[53]

③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다.

여러가지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세상에 베풀어진 가장 큰 왕의 연회와도 같은 축복이었다.[54] 그리고 천국을 보화에 비유한 것도 이러한 축복성을 교훈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윤선 목사는 사죄와 칭의로 말미암은 평안,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의 은총, 천국의 내세적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55]

3) 福音

예수의 가르침이 가지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점이다. 이 좋은 소식은 성경전체의 소식이며, 흐름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생에 관한 좋은 소식

앞에서 지적한 현재성과 미래성을 겸한 하나님의 나라(영생)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이다. 마11: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며 병자들이 고쳐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

53) 상게서, p.286.
54) 마 19:224, 막 9:43-47, 눅 18:30.
55) 박윤선, 「공관복음주석」 (서울:영웅사, 1964), p.654.

하나님나라가 임재한 상태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 심령들게게 어떤 조건도 없이 선물로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혹은 영생을 왜 모든 인간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사실은 성경이 人間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한다.

(2) 人間에 대한 좋은 소식

완전하였던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인간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한계를 가르치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으며(막 12:36,11:3), 포도나무 비유(15:1-5)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가르쳤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6:23)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계속해서 가증스럽고 정죄하는 악이 人間의 마음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가득하다고 가르쳤다.[56]

그런가 하면 人間은 잃어버린 바된 존재이다.예수가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였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던 최초의 원래적 능력을 잃어버렸다.[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人間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5:48)"고 말씀하심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완전히 헌신하고, 가장 고상한 이상을 가지며, 그리스도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

56) 이창근, 전게서, p.62.
57) 상게서, pp.62-63.

허락하신 것이었다.[58]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6:26) 이 말씀에서 사람이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함을 분명히 가르치며, 백합보다 더 귀하며 양보다 더 귀하다(마12:12)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人間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다.

(3)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어떠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그의 사역속에서 추론해야 하며, 그 분의 말씀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 분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표명함에 있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 그 자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관련된 선포의 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전 존재와 전 사역을 표명하는 그것이었다.[59]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분이며 본질은 영이시며 당신과 하나였음을 가르치고 있다.[60]

복음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3가지로 언급해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호칭이었다.[61]

① 하나님

헬라어로 "데오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엘로힘(하나님을 의미하는 위엄

---

58) Towns E.L., 「History of Religious Educaters」, 임영금 역, 「인물중심의 종교 교육사」(서울: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pp.46-48.
59) 이창근, 전게서, p.50.
60) 요 1:1-2, 10:31.
61) 이창근, 전게서, pp.50-51.

의 복수형)의 사상을 전제하고 사용된 칭호이다. 그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엘로힘」의 복수안에는 힘과 능력의 개념이 들어 있다. 예수께 있어서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지하며 믿으며 가르쳤다.

② 아버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추상적이고 독립적이며 분리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친조관계의 관계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62] 이 호칭은 예수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었다.[63]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중에 "아버지"라는 인사하는 말을 사용하도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도록 가르쳤다(마 6:9-13). 아버지라는 칭호의 개념은 사랑, 용서, 자비,선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며, 자비로운 분임을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든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으며, 그 분의 자비로움으로 그분의 성실하심과 사랑으로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쳤다.

③ 주(Kyrios)예수는 구약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주권과 위엄, 거룩하심, 전능하심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가르치셨다.[64]

그 주인은 다스리는 자요 위엄을 가지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의 「므나」비유에서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본질을 알아본 결과 하나님에 대

---

62) 상게서, p.51.
63) Towns R.L., op.cit., p.31.
64) 이창근, 전게서, p.52.

한 좋은 소식은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의 자비로움으로 용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며 또한 그분은 공의로워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가지고 계시므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신비롭고도 기쁜 소식이다.

(4) 예수 자신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했는가를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① 인자

예수는 자신에 대해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복음서 가운데서 그는 78회나 자기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다.[65]

Berkhof도 이 명칭이 4가지 종류와 관계시켜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66]

a) 종말론과 관계하여 사용하였다(마16:27, 막8:38)

b)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관계하여 사용하였다(마17:22, 20:18-19)

c) 하늘에 속한 초인간적인 인격과 하늘에 미리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였다(막2:10, 2:28)

d) 예수의 인간성과 관계하여 사용하였다.(막2:27-28, 요15:27)

② 아버지의 「아들」

이 명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아버지가 보낸자였음을

---

65) 상게서, p.56.
66) Berhof L., 「System atic theology」, p.313 (천정웅, 전게서, p.293.)

나타내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일치되며,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려 이땅에 오신 분임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이기도 하다. 이「아들」을 믿고 영접한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67]

③ 메시야(Messiah)

예수는 자신이 구약성경에서 장차오시리라고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야(구세주)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을 때에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께 말했다. "메시야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때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요4:25-26)[68]

메시야는 직능에 관계된 이름이며 이것은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69]

a) 직위의 임명

b) 기름부음 받은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성한 관계의 성립

c) 임직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교통을 말한다.

예수는 처음에는 이 메시야에 대하여 은닉을 했으나 후반에 가서는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예수 자신에 대한 호칭의 개념을 정리하면 예수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요1:1-14, 20:28)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70]

---

67) 상게서, p.294.
68) 이창근, 전게서, p.56.
69) Berkhof L. (천정웅, 전게서, p.294.)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영생)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의 메시야(구원자)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다.

(5) 성령에 관한 좋은 소식

예수의 가르침속에는 성령의 약속이 여러번 나온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71]

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가 메시야 임을 증거하신다.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요 16:13)

② 성령은 보혜사이다. 보혜사는 돕는자, 상담자라는 뜻으로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14:26)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성령은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다.(행 10:38)

④ 성령은 人間을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셨다.(딤후 3:16)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즉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며 사도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갈5:22)를 맺게 하신다.[72] 이 모든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은 오직 예수

---

70) 마 26:26-28, 막 10:25, 요 12:24, 요 10:15.
71) 천정웅, 전게서, pp.290-292.
72) 천정웅, 전게서, pp.294-295.

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에 가능한 것이다.[73]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저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요16:7)라고 가르치고 있다.

4) 천사와 사탄

(1) 천사

천사라는 칭호는 헬라어를 앙게로스라 하는데 messemger란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말르악"으로서 역시 measenger라는 뜻이다.

천사들은 우주적 존재들로서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권위를 가지고 대행하는 존재였다.[74]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에 대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히 1:14)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눅9:26, 12:8) 혹은 "그의 천사들"(마16:27, 24:30)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마22:30)이라고 하였다. 그들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 이란 천사는 예수의 탄생사실을 미리예고했다(눅1:13, 31)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75]

① 예고와 경고 사역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요한의 출생사실을 그 아비 사가랴에게 나타나 예고 했었고, 또한 마리아가 아직 잉태하기도 전에 그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사실을 미리 예고 했었다.(눅1:13,30)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

73) 이창근, 전게서, p.59.
74) 정인찬, 「성서 대백과」 7권 (서울:기독지혜사, 1981), pp.798-799.
75) 상게서, pp.805-810.

하던 밤에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소식을 예고 했었고 이와 동시에 곧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무수한 천군천사들의 합창이 아름답게 울려퍼졌었다.(눅2:8-15)

② 인도와 교훈사역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사실의 성격을 그에게 말한 후 그녀와 결혼하도록 교훈했었다.(마1:20)

③ 보호와 수호사역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수호 천사들에 대하여는 예수가 마태복음 18:10절에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천사는 보호 수호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구원사역

모든 천사들의 직무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의 필요에 도움을 주는 구원사역에 속한다.[76]

예수가 광야에서 40일동안 금식하여 기도하는 중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었다.(막1:13) 또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 힘을 도왔다.(눅22:43)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리어져 무덤에 장사되어 졌을 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그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77]

---

76) 상게서, p.809.
77) 마 28:2.

⑤ 심판 보좌의 사역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좌하는 일을 했다.

요한복음 1: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자기말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 하리라"고 하셨다.[78] 또한 누가복음 12:8-9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앞에서 나를 부인하는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예수는 재림의 때에 천사들이 자기를 수행하게 되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마25:31)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게 될 때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했다.[79]

이와같은 말씀들이 천사들의 심판보좌사역을 증거하고 있다.

(2) 사탄

사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상당히 明示的으로 악한 결과들을 산출해내는 대단히 교활하고 능력이 많은 영적 실존이었다.[80]

사탄이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로 비방자, 중상자, 반대자, 대적자, 유혹자 란 뜻을 가졌다.(마 4:1, 눅4;1, 요13;2)[81]

예수는 사탄에 관한 진리를 두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셨다.[82]

---

78) 눅 9:26.
79) 마 24:31, 막 13:27 참조.
80) 이창근, 전게서, p.64.
81) 이창근, 전게서, p.64.

① 예수의 체험 가운데서의 사탄

복음서에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83] 그 시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구세주로서의 사역에 대한 필연적인 서곡이었다는 복음서의 선언이다.

첫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식욕에 대한 시험이었다.

두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고자 하는 충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시험이었다.

세번째 시험은 사탄을 경배하는 시험이었다. 그것 자체로 죄악된 행위를 하라는 시험이었고 세상을 지배코자한 충동적인 시험이었다.

이것들은 육신적인 물질문제, 정신적인 명예문제, 영적인 종교문제 등으로 시험하는 사탄 본연의 형상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히2:4), 이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이나 예수는 그를 멸망시켰다(마25:31, 요12:31).[84]

② 예수의 말씀속에서의 사탄

예수는 사탄을 그 자신의 대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의 메시지의 원수로 인식하였다.[85]

요8:43-44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

82) 김영진, 「성서대백과사전」 3권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p.577-578.
83) 마 4:1-11, 막 1:12-13.
84) 김영진, 전게서, p.578.
85) 이창근, 전게서, p.67.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서 있지 않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탄에 대해서 예수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설명으로 예수는 사탄을 살인자로 고발한다. 즉 사탄의 인격, 실재, 능력, 교활성, 인내 그리고 그 사악함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86]

그런가 하면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을 선언하심과 동시에 사탄을 빛의 나라와 전쟁중인 어둠의 임금, 우두머리, 이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다.(요14:30, 16:11)[87]

5) 성도의 생활에 관한 교훈

예수는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

(1) 사랑

사랑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성도의 생활에 관한 교훈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조하여 가르치셨고 자주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줌으로써(요13:4-15) 사랑의 모본과 실천적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 사랑의 내용은 예수의 중요한 교육사상이었고 교육의 동기였다.[88]

막12:29-31절에서 서기관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묻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

86) 상게서, p.67.
87) 상게서, p.67.
88) 김대경, 전게서, p.22.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이 두가지 계명을 병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불가분의 통합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누구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와같은 사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마5:23-24 :참조)[89]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마리아인(눅1-:25-37), 원수(눅6:27-36) 세리와 죄인들(눅15:1-2)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그의 사랑의 교육내용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90]

① 용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개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예수께 묻자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식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라고 대답하였다.[91]

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8:7)고 하시며 그 여인을 용서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마16:14, 막 3:28). "기도 하기전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생각나거든 먼저 용서한 다음에 기도하라"(막11:25)고 가르쳤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였다(눅23:34). 이렇듯 용서는 사랑의 내용이며 실체이다.

② 구제

사랑의 내용 두번째는 구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였다. "소

---

89) Stein R.H., op.cit., p.161.
90) 김대경, 전게서, p.23.
91) 마 18:21-22.

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마19:21), "구제함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눅11:41),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구제하라"(눅10:30-37).

구제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실천하는 실제적 내용이다.[92]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증거와 아울러 구제로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93]

③ 봉사

사랑의 실제적 내용 3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봉사적 생활이다. 예수는 이 봉사의 삶을 친히 실천하였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하였다(막10:45).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다(마20:28).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데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요5:9-15).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막6:35-43, 요21:9) 죄인 들을 찾아가 위로 하셨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는 봉사의 손길을 내미셨고, 봉사도 말씀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밖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人間의 결혼에 대하여(막9:19), 기도에 대하여(마6:6~), 돈에 대하여(눅6:24-25), 죄에 대하여 (마1:21, 3:6, 9:2), 의에 대하여 (마5:27-28) 언급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기초한 것들로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때 해결되는 문제들로 고려되어 구체적 언급은 피하려고 한다.

---

92) 김대경, 전게서, p.25.
93) 박영호, 「개인전도 핸드북」(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p.102.

5. 예수의 敎育方法

1) 예수의 敎育的 意圖

예수가 가르치신 모든 교육 방법에는 그의 독특한 의도한 바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창근목사는 3가지로 그 의도를 말하고 있다.[1)]

(1)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것.

예수는 영원한 생명에 모든 인간들을 인도하려는 뜻으로 그것은 이 세상 왕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가르쳤다.[2)]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위로나 만족을 약속하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쳤다.

(2) 견고한 믿음을 보증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가르쳤다.[3)] 제자들을 향해서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을때 이 반석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였다(마 16:16-18). 이러한 말씀에서 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는 이에 대한

---

1) 이창근, 전게서, pp.84-86.
2) 막 8:36-37.
3) 요 3:16.

대답으로 산상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4]

2) 그의 가르침의 特性

이에 대해서 이창근은 6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5]

(1) 권위(authority)

그의 권위는 그자신의 인격으로부터 연원(淵源)되었다. 그의 청중들은 그의 가르침에 감동했고 그의 힘과 진실성에 놀랐다.[6]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말씀(Logos)이셨다.[7] 이것들이 그의 권위주의적 요소였다.

(2) 급진적인 성질

이 특성은 그의 가르침이 즉석에서 영상화되도록 가르쳤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냐"(마7:3, 23:24).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등의 말씀들은 그의 교훈들이 그 자리에서 영상화 되어지는 급진적인 말씀들 이었다는 사실이다.

(3) 단순성과 구체성(Simplicity and concreteness)

예수의 교육 방법의 특성은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구체적이고 단순한 용어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8]

---

4) 마 5장~7장.
5) 이창근, 전게서, pp.87-97.
6) 마 7:29.
7) 요 1:1-4.
8) 마 11장, 막 3장, 요 15장 등등 참조.

(4) 독창성(Originality)

예수의 가르침은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듣고 이해하였다(마7:29). 이것은 보다 적극적이며 공의와 사랑의 영역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5) 자연스런 표현

그는 야외에서 혹은 갈릴리의 낮게 경사진 곳에서 강화하였으며 때로는 회당에서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의 용어는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常用語였다. 그의 예시들은 항상 청중들의 공통되는 경험들로부터 도출되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日常事의 실제적인 문제들이었다.

(6) 대중성

예수의 가르침에는 많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가 그분의 교훈을 즐겁게 들었다.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논리적으로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의 풍부한 비유와 감동을 주는 표현때문이었다.[9]

3) 예수가 사용한 敎育的 材料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으로서 그의 교육재료에 대한 고찰이다.

(1) 성경(Bible)

특별히 구약성경은 예수가 가르칠때 사용한 가장 필요로 했던 교육재료가 되었다.[10]

---

9) 막 6:35-44, 8:1-10.
10) 송덕준, 전게서, pp.30-31.

(2) 자연

예수의 교육적 방법에 사용한 재료중 두번째가 "자연계"일 것이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자연의 모든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동물의 세계(마6:26, 마7:6, 마8:20, 마10:16)와 식물의 세계(마6:28, 7:16, 13:3, 13:31, 마13:39)을 인용하였으며,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인용하여 가르쳤다.(마5:14, 5:45, 요3:8)[11]

자연계는 예수로 하여금 교사가 되게 하는데 유용하였으며, 뛰어난 방법을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하시기에 충분한 재료가 되었다고 하겠다.[12]

그는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이었고, 자연에 친숙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그의 가르침은 항상 채색되었다.[13] 그래서 예수는 자연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보상과 형벌, 권위와 심판의 진리를 쉽게 청중들을 이해시켰던 것이다.[14]

(3) 최근의 사건들

예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연의 관찰력 그리고 최근에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교육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심오하고도 감동적인 교훈을 주셨다.[15]

예를 들면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빌라도가 그들의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을 말했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이 죽은일을 말했다. 그들도 회개치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멸망한

---

11) 상게서, p.34.
12) 상게서, p.35.
13) Price J.M., 「Jesus the teacher」, 김철호 역, 「위대한 교사예수」(서울:침례회 출판사, 1993), p.71.
14) 송덕준, 전게서, p.35.
15) Price J.M., op.cit., p.72.

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눅13:1-5)

이러한 최근의 사건들이 그의 교육적 방법의 풍부한 재료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예수의 敎育方法

예수는 자신이 의도한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가지로 나타난 가르침의 형태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언어적 方法(Oral method)

복음서상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방법 중 첫번째가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친 方法이다.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서 강의, 설교, 질문, 담화, 토론, 상담, 대화식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6] 이것들을 몇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강의법(講義法)

강화법(講話法)이라고도 하는데 교육 내용을 강론의 형식으로 해설해 나가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언어를 통한 학습이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예수는 이러한 방법을 큰 무리를 상대로 사용하였으나 대개는 수의적고 많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용하였다. 사역 초기에는 「산상설교」[17]가 대표적이었고 「세계 종말의 징조」[18]와 「다락방설교」[19]에서도 나타나는데 군중들, 군중들과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해진 이런 강화가 복음서에 60여개가 들어있다고 Horne은 주장한다.[20]

---

16) 송덕준, 전게서, p.48.
17) 마태복음 5-7장.
18)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19) 요한복음 14장-17장.
20) Price J.M, op.cit., p.113 (Horne H.H., op.cit., pp.4-16.)

이러한 강화의 장소는 성전(마21장, 막12장, 눅19장, 요78장)과 회당(마13장, 막6장, 눅4:15 요6:59) 그리고 동네(마11:1), 촌(막6;6), 바닷가(막4:1), 산·호숫가였으며 강화의 주제는 재물, 결혼관, 안식일, 사명에 관한 모든것을 망라하였다.[21]

그중에서 3가지 예를들어 강화법의 원리를 고찰해본다.

① 산상수훈에서 (마 5장-7장까지)[22]

Ⅰ.서론: 우리들, 제자들, 교사.(5:12)

Ⅱ.요점. A. 시작부분:아홉가지의 복의 목표들로 새로운 가치관 정립 (마 5:3-12)

B. 중간 부분:예수의 제자들은 빛과 소금이다(마 5:13-16).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켰다(마 5:17-7:23).

C. 적용 : 두종류의 기초 (마 7:24-27)

Ⅲ. 예수가 천국의 헌장 반포하심.

Ⅳ. 결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 그를 따르게 됨.(마 7:28-8:1)

이런 원리의 산상수훈을 가르켜 Erdmen은 "세계 문학계에 있어서 최고의 강화였다"라고 말하며 흑기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라고 했으며, Tholuck은 "산상교훈은 천국의 대헌장(Magna charta)이다" 라고 말하였다.[23]

② 심판 강화에서(마 24장-25장)

『감람산 강화』[24] 라고도 불리우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강화이다.

예수는 여기에서 재림시에 일어날 징조들과 재림의 갑작스러움과 그

---

21) Ibid, p.113.
22) 김대경, 전게서, pp.79-80.
23) 이상근, 전게서, pp.82-83.
24) 상게서, p.38.

에 뒤따른 심판을 설명하였다.[25]

이 강화에 포한된 주제들은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의 이야기(마 25:1-13). 다섯달란트와 두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마 25:14-30). 양과 염소의 이야기(마가: 31:46)가 들어있다. 이런 심판에 대한 가르침의 장소는 산이었으며 청중은 제자들이었다[26]

③ 작별을 고하는 연설에서(요14장-17장)

예수의 강화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며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두고 한 마지막 작별 연설이다.[27] 이 연설은 위로의 말씀으로 성령의 오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한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만날 문제들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다. 이 강화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작별을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상의 강화법은 청중의 사고를 자극하고 마음을 꿰뚫으며 실제적이고 생동적이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랬으며(마7:28)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요7:46)고 감탄하며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했다. 그의 강의는 지성, 감정, 의지의 3가지 주기를 포괄한 뛰어난 방법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28]

나. 질문법(質問法)

질문한다는 말의 어원은 "아래를 두들겨 보아 소리를 조사하다"는 뜻

---

25) 송덕준, 전게서, p.52.
26) 상게서, p.52.
27) 상게서, p.53.
28) Price J.M., op.cit., P.114.

인데 이것은 물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수병이 물소리를 들어 본다는 의미이다.[29]

예수는 알려진 것에서부터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데서 추상적인데로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것으로 부터 순전히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에게로 나아가는, 소위 귀납적 방법의 일환으로 이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Price는 질문의 목적에 대하여 첫째로 주의를 받고 학습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둘째로, 인상을 명료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명료한 질문,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0]

예수의 질문법은 사복음서에서 일백여개가 넘는 상이(相異)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법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31]

첫째,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네 의견에는 이 세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10:36)라는 질문이라든가,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17)고 3번씩이나 질문한 것은 그만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강조하고자하는 질문이었다.

둘째, 청중들의 문제를 생각해 내도록 하기 위한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막10:36) 이렇게 질문하여 청중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

29) Ibid., p.114.
30) Ibid., pp.114-115.
31) 천정웅, 전게서, pp.81-82.

셋째, 상황을 분명하게 하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36)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 명하였느냐?" (막10:3) 등의 질문은 상황을 분명하게 하여 그들로 부터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자 했다.

넷째 예수의 뜻인 믿음을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마16:13-15)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막10:38)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6)

다섯째,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질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마21:25)

여섯째 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질문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막2:25)

일곱째 질문을 논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질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6:30)

이러한 예수의 질문법에 대한 특성을 Horne은 열한가지로 열거하고 있다.[32]

① 독창적이다 ② 실제적이다 ③인격적이다 ④수사적이다 ⑤자극적이다 ⑥ 분명하다 ⑦ 탐구적이다 ⑧ 개인에게 적용된다 ⑨ 침묵 가운데 말

---

32) Horne H.H., op.cit., p.74.

해지기도 한다 ⑩ 명백하다 ⑪ 간단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Horne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질문을 하시는 그의 모습이 진지한 모습, 동정적인 모습, 엄하게 심문하는 모습, 신중한 모습, 엄히 책망하는 모습, 천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3]

또한 Merill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위대한 교사로서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을 해방시키는 것이거나, 사유와 연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데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적은 그 부담을 증가시키며, 사람들로 보다 양심을 자각하게 만들고 보다 열심 있게 만들며 보다 도덕적인 감각에 있어서 활발하게 만드는데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자 오셨다. 그는 인간 영혼을 안주시키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자극하여 각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34]라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는 "질문법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신 교육자로서 많은 효과를 거둔 실제 인물이 되었던 것"[35]은 Francis Bucon이 "기술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반쯤 알고 있다는 말이다"[36].라고 한 것처럼 예수는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교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응답법(應答法)

예수는 좋은 교사로서 항상 대답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대답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러했기에 질문

---

33) Ibid., p.76.
34) Merrill W.P., 「Christian Internationalism」, pp.42-43. (Horne H.H., op.cit., p.77.)
35) 김대경, 전게서, p.85.
36) F.Bucon (H.H.Horne, op.cit., p.78.)

에 대한 훌륭한 응답으로 탁월한 교육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응답법은 그의 사역 후반기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고 Horne은 말하고 있다.[37]

예수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대답을 할 때는 그 대답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교육을 하였다.[38]

예를 들면, 예수가 네가지 종류의 토양에 관한 첫번째 비유를 말씀하였을 때(마13:3-9)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마13:10-23)라고 물었다. 예수는 비유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와 왜 "감추어진 말씀"을 사용하였는지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또한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했을 때 예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원치아니하노라 하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9:11-13)라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막2:19-20)라고 대답한다. 그것은 신랑은 예수 자신이며 그와 함께 하는 집이 잔치집이요 곧 천국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37) Horne H.H., op.cit., p.79.
38) 천정웅, 전게서, p.87.

또 한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7:5-13)라고 대답하심으로 하나의 예증(例證)과 꾸지람과 구약을 인용하여[39] 이들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답변들이 지닌 특성을 Horne은 열가지로 설명하고 있다.[40]

ⓐ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마24장).

ⓑ 심오하다(요6장).

ⓒ 질문의 형태로서 주어진 답변이다(요6장).

ⓓ 딜레머의 형식으로 던져진 답변이다(마21:25).

ⓔ 질문에 대한 답변 일 뿐 아니라 질문자 자체에 대한 답변이다.

ⓕ 사실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하지 않는 답변이다(눅17:37).

ⓖ 질문자가 요구한 것과는 엉뚱한 답변이다(요3:1-10).

ⓗ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주어진 답변이다(눅10:25-37).

ⓘ 침묵으로 답하신 답변이다(마27:11-14).

ⓙ 간접적인 답변이다(마18:1-6).

ⓚ 학문적인 질문에 대하여 실제적인 것으로 대답하신 답변이다(눅

---

39) Price J.M., op.cit., p.83.
40) Ibid., p.87.

13:23-24).

그뿐만이 아니라 Horne은 예수의 응답법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몇가지 목적을 내포한 대답이라고 지적한다.[41]

ⓐ 예수는 선한 믿음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 예수의 대답은 질문의 이면에 숨겨진 동기에 의거한 것이었다.

ⓒ 그 대답들은 보다 많은 질문을 던지므로써 사람으로 보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대답이었다.

ⓓ 자주 행동을 요구한 대답이었다.

ⓔ 예수의 답변은 극히 구체적인 실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고하게 만들며 실천적 행동과 생명력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교육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대화법(對話法)

대화법은 특별한 형식과 교육 행위를 배격하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의 교통으로 소기의 목적을 유도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관적인 감정과 사상을 발견해 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42] Price는 토의법을 "집단사고를 통해 서로 통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3] 이 방법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자발성, 창의성 및 미지에 대한 인내성 등을 요구하는 고도의 수업방법이라 하겠다.[44]

---

41) Ibid., pp.88-89.
42) Schreyer G.M. (김대경, 전게서, p.94.)
43) Price J.M. (상게서, p.94.)
44) Ibid., p.95.

Horne은 Washington Gladden이 쓴 「훌륭한 대화가 갖는 특성들」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훌륭한 대화자가 되는데는 훌륭한 정신과 훌륭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훌륭한 정신에는 선천적인 능력, 지성(知性), 훈련이 내포되어지고, 훌륭한 마음에는 훌륭한 기질, 관대한 성품, 솔직성, 동정심, 열정, 진지함, 겸손 등 일곱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다.[45] 예수에게도 이러한 훌륭한 정신과 훌륭한 마음이 있었다. 그의 대화 속에는 선천적인 능력이 나타나 있고 지성과 정신적 훈련이 세밀히 나타나 있으며 훌륭한 기질, 관대한 성품, 솔직성, 동정심, 열정, 진지성, 겸손 등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46]

계속해서 Horne은 예수의 대화법의 특성을 20가지로 지적해주고 있다.[47]

ⓐ 간략하다(마4:4, 9:29, 요5:6, 막8:23).

ⓑ 의미심장하다.

ⓒ 둘러대어 말하는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직설적이고 분명하다.

ⓓ 인격적이다.

ⓔ 상대방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 교훈적이며, 의사소통이 활발하다.

ⓖ 눈길을 사용하시어 목적을 달성한다(막10:27).

ⓗ 반응적이다.

ⓘ 용감하다.

ⓙ 책망하는 것이 좋다.

ⓚ 경이적이다(막12:17).

ⓛ 친밀하다.

---

45) Horne H.H, pp.64-65.
46) Ibid., p.65.
47) Ibid., pp.68-69.

ⓜ 평판을 불러 일으켰다(막12:34).

ⓝ 기쁨을 주는 동시에 통렬한 아픔을 주기도 한다(막12:37,10:22).

ⓞ 독백일 때도 있고 대화일 때도 있다. 주심과 취하심이 병행하고 있다.

ⓟ 너무도 눈치와 재치가 빠르다.

ⓠ 비타협적이다.

ⓡ 고결하다.

ⓢ 친구를 만드는 동시에 원수도 만든다(막12:12).

ⓣ 고무적이다.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 있는 예수의 대화를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이다(요한복음3장).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었으며 관원이었고 교사였다. Calkins는 그를 대학 교수요, 대법원판사요, 교회감독(목사)에 비교했다.[48] 분명히 니고데모는 상류사회에 속한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3:2)라고 말했다. 예수가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려면 중생의 통로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써 물로(자연적으로)나야하며, 성령으로(영적으로) 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감동했고 변화되었다.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를 변호했고(요7:50-51), 예수가 죽은 후에 세마포와 몰약 100근을 그의 장례를 위해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요19:30)

---

48) Calkins R., 「How Jesus Dealt with Men?」 (New York:Abingdon Coke subury Press, 1942), p.38.

두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이다(요14장)

사마리아 수가성이란 마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요14:7)고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여 그 여인을 회개시키고 이 여인이 변화하여 "내가 메시야를 만났다. 와 보라"고 외치게 하였다.

예수의 대화를 통한 교수법은 창조성과 주도성을 똑같이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공통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폭넓은 진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49]

또한 Horne은 이러한 훌륭한 대화자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말을 잘 하려면 삶을 바로 살아야 한다고 Gladden의 글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다.[50]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12:34)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예수는 그러한 훌륭한 대화자의 완전한 모습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마. 비유법(比喩法)

예수가 가르칠 때 사용했던 가장 유명한 방법이 비유법이다. 그것은 공관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비유형식이 그의 가르침 가운데 적어도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51] 이 비유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파라블레(Parable)에서 나온 단어로서 어원학적으로 "어떤 대상을 나란히 놓는 것"을 의미한다.[52] 신약성경속에는 이러한 비유라는 말이 약 50여차례 나

---

49) 김대경, 전게서, p.98.
50) Horne H.H., op.cit., p.65.
51) Stein R.H., 「The method and message of Jesus teaching」, 유재덕 역 「예수님의 교훈 내용과 그 방법」(서울:할렐루야 서원, 1994), p.61.
52) Wycliffe, 「Wyeliffe Bible Encyclopedea」(서울:지평서원, 1986), p.568.

타나고 있다.[53] 공간복음에 48번, 히브리서에 2번 기록되었고 비슷한 말인 파로이미아(비사)가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나 있다.(요10:6, 16:25, 29)

곽선희는 예수가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7가지 이유에서 였다고 주장한다.[54]

ⓐ 보다 더 잘알게 하기 위해서 였다.

ⓑ 또 한편으로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였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라"(마13:14)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진리를 구체화 하기 위해서 였다.

ⓓ 말씀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였다.

ⓔ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케 하기 위해서 였다.

ⓕ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이러한 비유법으로서의 그의 가르침은 그가 군중들에게 놀라운 선생이었음을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의 목적들이 명백하게 청중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예수가 사용한 비유의 형태는 실화, 이야기, 예화 등이었고 단순한 나무, 돌, 물, 소금, 씨앗 등으로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가르치는 상징적 방법이었다. 이와같은 비유로 사용된 재료가 61가지인데 그중 34가지가 사람을 취급했고 4가지는 짐승을 취급했으며, 7가지는 식물을, 그리고 16가지

---

53) Horne H.H., op.cit., p.104.
54) 곽선희, 「예수님의 비유강해」 상권 (서울:혜선출판사, 1986), pp.13-20.

는 땅과 기타 물건을 취급했다고 Horne은 지적하고 있다.[55]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람들을 취급한 것이 55%, 짐승을 취급한 것이 7%, 식물을 취급한 것이 11.5%, 사물(무생물)들을 취급한 것이 26%로 분석된다고 했다.[56] 이러한 경향으로 예수님 사고의 범위와 특성을 고찰해 본다면 동물세계나 식물세계 또는 사물들의 세계를 취급하기 보다는 인간세계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실체론적(實體論的)이거나 과학적(科學的)인 특성들 보다 인문주의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가졌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사고 속에서 무생물 세계에 속한 사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다는 사실로 부터 그 특성이 정적(靜的)이라기 보다 동적(動的)이라는 것이다.[57] 생명력이 없는 물체들 보다는 성장의 현상들이 특별히 예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피조물 세계의 모든 부분들로부터 나아온 예수의 실례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범위로부터 예수는 아주 폭 넓은 범주의 흥미를 소유하셨었다는 사실과, 그의 생각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으며, 그 범위에 있어서 거의 제한이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Horne은 말하고 있다.[58]

그러면 이제 예수가 사용하신 비유법의 원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천정웅은 Towns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의 비유법은 「유대의 랍비」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이들의 해석방법이 예수께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59] 그러나 Horne은 좀 더 자세히 예수의 비유법의 유래를 지적해 주고 있다.[60]

---

55) Horne H.H., op.cit., p.115.
56) Ibid., p.115.
57) Ibid., p.116.
58) Ibid., p.116.
59) 천정웅, 전게서, p.69.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비롯하여 구약성경 여러 기자들의 글에는 우화, 수수께끼, 풍유 잠언 등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비유가 나온다.(삼하 12:1-9, 14:1-13) 예수는 3가지 종류의 책 즉 구약, 자연의 책, 그리고 생활의 책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약성경속에서 이런 비유들을 읽어보셨으며, 거기에서 찾아낸 것들과 그가 자연과 생활 속에서 창출해 낸 비유들을 천국(King dom of Heaven)의 새로운 메시지(message)를 전달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예수는 그 비유들을 찾아내시고, 받아들이시고,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고 또 그것을 완전케 하셨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마13:44)와 "진주비유"(마13:45-46)에서 단지 두 문장으로 된 짧은 비유지만 예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헌신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누룩의 비유"(마13:33, 눅13:20-21)에서도 예수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 누룩은 밀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데도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는 것이 누룩이다. 이러한 누룩의 숨겨진 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61]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에서 예수는 구약성경에 능한 율법사의 영생의 조건에 대한 질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는 계명을 인용해서 답변하였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네 의견에는 이세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비를 베푼 자 입니다"라고 그가 말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

60) Horne H.H., op.cit., p.21.
61) 김대경, 전게서, p.93.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 영생 즉 천국은 이렇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비유인 것이다.

예수의 많은 비유들을 Horne은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62]

첫째, 짧은 비유들, 가장 짧은 것으로서는 단 세마디로 된 "의원아 너를 고치라" (눅4:23) 라는 말씀처럼 격언, 잠언, 경구와 같은 비유이다.

둘째, 익숙한 사실들과 영적인 진리 사이의 비유를 암시하는 이야기들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들이다.

셋째, 이야기를 넘어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내에 진리를 담고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들이다.

넷째, 풍유(諷喩), 이것은 이야기의 영적인 의미가 이야기의 스토리속에 섞여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요15장)가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예수의 비유는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독특한 것이며, 복음서에는 구약성경보다 탁월한 비유들과 비유적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63] 마태는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마13:34)고 말했으며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마13:35)라고 말하고 있다.

(2) 삶을 통한 敎育方法

예수의 교육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가르친 교육의 내용과 생활이 일치 했다는 점이다. 교사로서의 예수는 어떤 특별하고 기이한 것을 가르친 선생은 아니었다. 그는 그 생애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자신을 가르쳤다. 곧 예수 자신은 하나님의 선교의 내용이었다.[64] 그래서 그 예수의 삶

---

62) Horne H.H., op.cit., p.106.
63) 김대경, 전게서, p.94.

을 통한 교육방법을 고찰해 보는것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가. 실천(모본)

예수가 생활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가르친 대로 그가 살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가 베드로에게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마18:21-22)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마9:2)하여 그를 용서하였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고 하여 그 여인을 용서하였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니다"(눅23:34)라고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그가 가르친바 대로 행동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5]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런데 그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으며(막6:46), 40일 금식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마4:1-2), 십자가의 사건 전날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린 기도를 밤새도록 하였다(눅22:39).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제자들에게 회생과 봉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실망한 자의 집을 찾아가서 친구요 형제라고 불러주었다.[66]

Stewart는 "그리스도는 진실로 최고의 선생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

64) 정우섭, 「기독교 교육개설」(서울: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6), p.193.
65) 마 6:6.
66) 마 12:49-50, 요 11:11.

가 가르치신 일에 대하여는 최대의 성의를 기울여 실천하셨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했다.[67] 여기에 예수의 교육은 무엇보다 권위가 있었다. 그에 대해서 마태는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마7:28)

나. 훈련

예수의 삶을 통한 교육의 두번째는 훈련의 방법이었다. 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눅10:37)고 실천을 요구하며, 한 젊은 부자 관원에게도 "너는 가서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막10:20)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전도 훈련을 하였으며[68], 그 뿐 아니라

칠십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세상에서 직접 전도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눅10:1-12), 또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한 일을 당해 보게 하였고 (막4:36-41) 군중들의 힐난도 받아보게 하였다.(마9:14, 눅21:12) 예수는 제자들이 능히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지도자의 역량을 기르도록 훈련을 했던 것이다.

다. 교제

예수의 삶을 통한 교육 방법 중 하나는 교제를 통한 방법이다. 예수는 제자들과 깊이 사귀었다. 같이 걷고, 이야기 하였으며, 같이 먹고 일 하였으며, 서로 상통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을 「얘들아」(막10:24)라고 부르기도

---

67) Stewart J.S. (천정웅, 전게서, p.113.)
68) 마 10:5-8, 막 6:7-13, 눅 9:1-6.

하고, 「적은 무리여」(눅12;32)라고 부르기도 하였다.[69]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3:14)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눅22:28)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22:15)

이와같이 제자들은 예수와 더불어 사귀게 될 때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예수처럼 성장하였다.[70] 그와 더불어 그처럼 빛나고, 참되며, 용감하고 절대 무사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넘치는 신앙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신용은 사귐을 통하여 그들을 점차적으로 변화시켰다.[71]

이러한 사귐을 통한 예수의 교육은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단체 생활을 통하여, 공동 생활이나 봉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천국시민의 생활원칙으로 사랑, 희생, 협동, 합심기도, 예배, 충성 등을 들고, 이것들은 혼자서 할 수 없고 단체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도록 했다.[72]

예수는 적어도 삼년동안을 밤과 낮으로 육지와 물에서 산과들, 집안과 밖에서 혹은 무리와 함께 혹은 따로 늘 같이 지내셨다.(막 6:30-32) 그러는 중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가 익혀졌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73]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이라든지(마4:24, 8:14, 9:29), 죄인들을 찾아가 용서해 주고 위로해 준다든지(마9:10, 눅19:7),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막6:35-43)등의 봉사생활 속에서 교제하고, 이해하며, 가

---

69) 천정웅, 전게서, p.228.
70) Little J.W., 「Teaching as Jesus, Taught」, op.cit., p.67.
71) Ibid., p.67.
72) 송덕준, 전게서, p.72.
73) 상게서, p.72.

르치고 서로를 배웠던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교육이 힘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인격적 감화, 곧 상호신뢰와 우정을 키우도록 했다.[74]

(3) 象徵을 통한 敎育方法

복음서에 나타난 상징을 통한 예수의 교육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보기 드문 예수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Sherrill은 이것을 "비언어적 방법 혹은 상징적 교통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속에 사용된 모든 상징들, 즉 물건들, 자연, 인격적인 대상, 사랑과 슬픔, 행위, 새 이름들, 구체적인 이름들, 꿈, 비유 등은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대변하는 표징들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다. 여기서 그러한 상징들 자체는 하나의 언어가 되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속에 새롭게 대변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75]

가. 실물(實物)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가 실물을 통해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빛과 소금, 티끌과 들보, 눈과 팔, 문과 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바위 위의 집과 모래위의 집 등 많은 실물들을 통하여 가르쳤다.

신뢰를 가르치는데 "새"를 (마10:42), 결실을 강조하는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눅13:6-9),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는데 "산"을 (막11:23), 거듭나는 도리를 가르치는데 "바람"을(요3:8) 통하여 교육하였다.[76] 이러한 대상물(실물)의 가치는 시각에의 호소와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구체성에서 나온다. 시각이 청각보다는 더 효과적이며 어떤 사

---

74) Little J.W., op.cit., p.67.
75)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p.346.
76) 송덕준, 전게서, p.75.

람은 약80%의 지식이 그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한다. 거의 누구나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잘 기억한다고 Price는 말한다.[77]

Edward Leigh Pell은 "우리는 사물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 일반원리를 말한다. 많은 교사들이 연필과 종이를 써서 두세 번 그려넣어 1-2분 만에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입으로 30분 동안 설명하려든다. 만일 천주교인들은 개신교도보다 그의 교회에 더욱 헌신적이라면 그 이유는 천주교인들은 개신교도들이 상징적으로 일하도록 팽개쳐 있을 동안 보고 손대면서 일하도록 교육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78]

Miller도 "인간의 시각을 위주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79]

예를 들면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마18:2-3)

또한 제자들에게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13:1-15)고 가르쳤다.

또다른 경우에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이 보낸 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시험 할 때에. "세금내는 돈을 하나만 가져오라"고 하여 그것을 보여주며 "여기 누구의 화상이 있는냐?고 묻자 "가이사의 것입니다"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22:15-22)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

77) Price J.M., op.cit., p.98.
78) Ibid., p.98.
79) Miller R.C., 「Education for Christian Living」, 장병일 역, 「기독교교육개론」(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1), p.259.

실물교육이 복음서에 약 34개 나타난다고 Horne은 주장한다.[80]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의 가르침을 매력적이고 분명하고 인상적으로 하기 위해 실물을 사용한 몇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나. 극화(Dramatic)

복음서에서 예수가 형식적이건 비형식적이건 그의 가르침에 극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그의 독창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은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게 맨발로 걸어 가게 하신일이나, 예레미야에게 목에 명예를 메고 예언하게 한것이나, 에스겔이 예루살렘성의 모형을 만들어 포위공세를 극화한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 애굽에서 장자를 구해 준 일과 관련된 장면을 재현했다. 또 그들은 초막절에 애굽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들이 살던 초막의 경험을 극화 했었고, 초막과 성전의 의식들은 극적이었는데 특히 예배자들의 씻는일, 여러 희생제물과 관련된 동물들의 선정 도살 그리고 봉헌과 관련된 의식들이 그러했다.[81]

예수는 형식적인 극화의 순서나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리를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나 시사적인 활동의 묘사를 극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그중 하나가 그가 직접 요단강에 내려가 세례요한으로 부터 세례를 죄씻음을 받는 상징으로 받은 사건이다.(마3:13-17). 그가 세례를 받고 나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는 요단강변에서 성삼위의

---

80) Horne H.H., op.cit., pp.156-157.
81) 천정웅, 전게서, p.63.

성스러운 會遇의 극적인 장면이었다.[82]

또하나는 성만찬의 사건이다(마26:20-28, 막14:22-25, 눅22:7-22, 요13:1-20), 이것은 극적 형식으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 깊은 경험과 가르침을 재현하는 극이었다. 성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이 경험에 참여함을 묘사한다. 예수는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이용하여 떡은 나의 몸이요,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가르친다. 깊은 인상을 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누가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눅22:19)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쫓아내는 사건(마21:12-13),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소리지르는 가운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등은 인상적인 극화의 장면이라 할 수 있다.(마21:7-11) 그는 분명코 이러한 극적인 사건으로 제자들과 청중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Love는 "소리로는 귀에 복음을 전하나 의식을 통해서는 눈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83] 이렇게 예수는 다양한 형식의 극적인 방법을 교육에 사용하였다.

(4) 聖靈을 통한 敎育方法

예수의 특별한 교육방법,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즉 성령이 충만하여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

82) 이상근, 전게서, p.68.
83) J.F.Love and Gambrell (J.M. Price, op.cit., p.103.)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이런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예수는 그의 교육적 능력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의 랍비나 서기관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권세나 권위가 있었다.[84]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육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어떻게 교육적인 활동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였다.[85]

이 사실을 요14:26절과 16:12-15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다.

첫째는 가르치는 활동 즉 교육, 교훈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생각나게 하시는 활동 즉 학습에 있어서 기억하게 하는 활동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26절)

셋째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활동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12절)

이렇게 성령의 교육적 활동을 예수는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교육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성령의 활동이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성령의 교육적 활동을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여 높은 영적 수준으로 그의 제자들을 끌어 올렸던 것이다. 이 힘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 하였다.[86]

6. 예수 敎育의 領域

교육자였던 예수는 자신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대상을 목표로 삼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학적으로 체계를

---

84) 마 7:29, 눅 4:31-32.
85) 천정웅, 전게서, p.123.
86) 사도행전 1:8.

세우기란 어렵겠지만 예수가 보다 주력을 기울였던 대상들을 범례적으로 분석하되 Sherrill이 분류한 3종류의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대상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1)]

1) 特殊層의 敎育

특수층이란 그 당시에 지도자로 군림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지칭한다. 예수가 이들과 직접 대화하신 기사가 복음서에만 약41번이 기록되어 있으며[2)] 예수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많은 부분이 직접적인 책망과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변론으로 되어있다.

예수는 어느날 어떤 바리새파 사람의 만찬초대에 응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3)]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자 그들의 속마음을 통찰하신 예수는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눅 11:39)고 책망하였다. 주로 그들이 성서해석의 특권을 잘못 감당함으로써 민중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과 실제적으로는 예언자들을 박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이 예언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그들을 숭상하는 척 하는 위선에 대한 것이었다.[4)]

이 책망은 첫째로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저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으로 이것을 책망함이다.(눅 11:39))

---

1) Sherrill L.J., (김미영, 전게서, p.17.)
2) 이성호, 「성구대사전」 항목 "바리새인(파)", "서기관(장)" (서울:혜문사, 1977), p.560, p.770.
3) 마 23:1-36, 막 12:38-40, 눅 11:37-53.
4) 김미영, 전게서, p.18.

둘째로 겉과 속을 함께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신 후 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해야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가르침이었다.

셋째는 "겉"과 "속"의 대조를 그들의 종교생활의 허위에로 확대적용시켰다. 즉 그들이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면서도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었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반드시 지키되 그 정신으로 그들의 헌물을 정성스럽게 하라는 가르침이었다고 김미영은 그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5]

예수는 이들에 대해서 권위에는 권위로, 성경에는 성경으로, 지혜에는 지혜에로 대응하시면서 의도하신 바를 철저히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6] 또한 어느날 아침 예수가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간음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을 던졌다(요8:1-11),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예수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셨다. 침묵속에서 예수의 말씀의 조명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예수는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죄인 임을 깨닫게 하는 인지 전환의 교육을 하셨다.실지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의 가르침은 이들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7]

그 밖의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마22"15-22)에 대한 논쟁이나 "그

---

5) 상게서, p. 20.
6) 상게서, p. 20.
7) 상게서, p. 25.

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의 문제"(마22:41-46, 막12:37, 눅20:41-44)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들을 바르고, 참 신앙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시려는 예수의 교육적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특수층에 대한 예수의 교육에서 3가지를 배워야 한다.[8]

ⓐ 예수는 그를 대적하는 종교지도자들을 교육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 바른 메시야관을 정립시켜 주시기 위해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다.

ⓒ 성경을 가르치실 때 다윗의 주관적인 고백을 객관화시킨후 그 객관화된 지식을 예수 당시의 현실로 이끌어 먼저 정확하게 분석 해석하시고 다시 바리새인들의 사고 구조 속에 주관화 시키고, 예수 자신에게도 적용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다.

2) 一般 大衆 敎育

예수가 갈릴리에서 전도활동을 하였을 때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Stalk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9]

"그가 갈릴리의 전도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두 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벌써 그의 명성은 그 지방에서 안 퍼진 데가 없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주위에는 천명 혹은 만명을 헤아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 예수는 어떤 거리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인파가 넘쳐서 그들을 들판이나 광야로 불러낼 수밖에 없었다".

---

8) 상게서, p.28.

9) James Stalker, 「The life of Jesus christ」 (New York : American Tracts-ociety, 1981) p.61.

이렇게 대단한 운동을 일으키게 된 이유를 Stalker는 이적(miracle)과 가르침(preading)이라고 보았으며[10], Horne은 "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하여, 또는 그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보기 위하여, 새로운 랍비를 만나보기 위하여, 그의 훌륭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떡과 고기를 얻어 먹기 위하여 나아왔다"[11]고 말하고 있다.

예수는 한 사람의 敎師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섬기시는 종이기도 했었다. 그는 대중들을 대하실 때 목자없이 흩어져 유리하는 양떼를 대하시는 애정으로 돌보셨다.[12] 그래서 때로는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후 배불리 먹게도 하시고(마14:13-21) 병을 고쳐주시며 함께 잔치에 참석하시기도 했었다.(요2:1-11)

예수는 자신의 이적들을 주로 도시나 성읍들에 반포하셨던 것처럼 보인다.(눅8:1-3) 그는 "내가 다른 성읍에도 역시 가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시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오로지 그런 곳에서만 전념하셨던 것은 아니었다할지라도 대중이 모여있는 중심지에서 교육적 계획하에 사역을 하시곤 했다.[13] 때로는 예수가 무리들을 인하여 적지 않는 곤란을 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예수께 모여들어 그를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어 식사할 여유조차 갖지 못할 정도였으며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붙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요6:1-15)

그러나 그는 교육을 위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셨고 "호기심이 많았으나 그들의 관심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했다.[14] 군중들의 심리를 잘 알

---

10) Ibid., p.62.
11) Horne H.H., op.cit., p.172.
12) Ibid., p.17.
13) Ibid., p.173.
14) Sherrill L.J.,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The

고 있었던 예수는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방법, 기적과 이적, 말씀으로의 교훈, 극적 시위 등으로 그의 교육활동을 그치지 않으셨다.[15]

그가 사랑했고 그와 친밀했으며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후에나 찾아가시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였다. 그러나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요11:1-45).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자신을 메시야로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16] 나사로의 죽음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통분히 여기시는 그의 모습은 Little이 지적한 바대로 그의 인격적 감화력과 다정한 우정 그리고 풍성한 동정과 긍휼을 실감나게 한다.[17]

이사건에서 대중들이 원했던 것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거나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예수의 능력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원하셨던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18] 대중을 위한 예수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소위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7장의 가르침일 것이다.[19] 예수의 가르침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대중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게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는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자신의 마음속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인 생활언어로 설명하며,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질을 가진 대중들에게 하나의 추상적인 천국윤

Macmilian Company, 1969), p.85.

15) 김미영, 전게서, p.30.
16) 상게서, p.31.
17) Little John W., op.cit., pp.8-21.
18) 김미영, 전게서, p.35.
19) 눅 6:20-23, 막 9:10, 눅 14:34-35, 막 10:11, 눅 6:26-49, 11:2-4, 12:33-34, 눅 16:13 참조.

리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가르쳤다.[20]

그리고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장정 오천명을 먹였던 사건(마14:13-21, 막6:30-40, 눅9:10-17, 요6:1-14)이나 떡 일곱개와 물고기 몇마리로 장정만 사천명을 먹였던 사건(마15:32-29, 막8:1-10)등은 예수의 대중집회현장, 대중 교육의 생생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는 그의 쉽고, 독창적인 성경해석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이 땅위에서 천국시민으로서의 선한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 있다.

3) 弟子敎育

예수가 펼치신 교육활동의 대상중 3번째가 제자이다. 그에게는 12명이라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다. 이들과는 함께 먹고 자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이들을 철저한 사역자들로 무장시켰다. 그들을 이렇게 까지 훈련시킨 목적을 Stewart는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1]

"이에 12인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도 보내사 전도를 하며"(막3:14)

이 말씀에서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다. 예수는 그들을 자신과의 친교를 통해 훈련시키려 했다. 즉 그들이 사사로운 대화와 그의 꿈과 이상과 희망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결국 예수의 정신을 갖게 되며, 점차 그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며, 그의 이해력으로

---

20) 김미영, 전게서, p.44.
21) Stewart J.S.,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김득중 譯,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서울:컨콜디아사, 1981), p.73.

세상을 이해하며, 그의 순수한 불로 타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다.[22]

둘째는 "그들로 전도하게 하려고 이다". 갈릴리에서 예수의 활동은 급속히 성장되었고 기회가 매우 좋았으며, 또 멸망해 가는 심령들을 구원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기 위함이었다.[23]

이들을 교육하는 예수의 방법은 교제와 교훈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가 이들을 택하실 때 다른 대중들과는 다르게 만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은 예수를 만나 그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찾아 나왔으나 제자들은 그가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소개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 수 있다.(요1:35-51)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들이 일하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9)[24] 라고 말씀하신 다음 스스로 결단하여 따라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가 앉아있던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를 좇았다.(막2:15-16)라고 기록하고 있다.

Kinghorn은 제자의 4가지 자세를 순종, 교제, 신뢰 그리고 열매 맺음이라고 설명했다.[25]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를 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예수는 이들을 성령에 의한 계속 교육의 원리로 가르쳤다.

---

22) Ibid., p.74.
23) Ibid., p.74.
24) 막 1:16-20.
25) Kinghorn K.C., 「Dynamic Discipleship」 (김미영, op.cit., p.56.)

즉 예수가 성령을 받으셨다.(눅9:1-2), 그리고 자신의 증인이 될려면 먼저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26]

예수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른다. 이 말은 나와같은 자로 나의 자리를 취하고 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27]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저는 진리의 영으로(요15:26)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요16:13) 그들을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며(요16:14), 예수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요14:26)으로 가르치고 있다.

인간교사는 학생들에게 외부적인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은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에 관계를 맺는 역사를 하신다.[28]

"어떤 다른 교사도 외부적인 동시에 내부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즉 교사가 학생의 내부에 뚫고 들어가서 그 존재의 심층에 개인적이고 친밀한 역사를 할 수 없으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동적 방법으로서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학생의 내부에 들어가서 주관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부적인 말씀을 내면화 시키시는 성령은 그 말씀이 계속 후대에 전달되도록 제자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있어서 제자들을 몇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예수는 가르치고 있다.

첫째 자격은 그의 가르치신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요8:31)

---

26) 행 1:8.
27) Handriskson, 「The Gospel of John 3 Vol」, 유영기 역 (서울:아가페출판사, 1981), p.363.
28) 김미영, op.cit., p.60.

이 말씀을 Calvin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자는 그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안에 계속 거하여야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여기에 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도록 노력해야 한다".[29]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Hendriksen은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는 말씀을 자기 생활의 원리로 만듦으로써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30] 그리고 Lenski는 이 말씀은 "그의 말에 확고히 선다는 뜻"[31]이라고 했다.

이런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확고히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요13:35)

사랑하는 것은 새계명이요(요13:34), 가장 큰 계명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다.(마22:34-40, 막12:28-34, 눅 10:25-28)

요한 복음 21:15-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고기 잡은 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고 제자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이다.

---

29) Calvin N.T., 「Comentaries St.John」 Vol4, pp.220-221.
30) Hendriksen W., 「A Commentheary On the Gospel of John」, Vol. II, p.71.
31) Lenski R.C.H., 「The Interpretation of St.John's Gospel」, Vol.I, 장병일 역, p.13.

세번째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요15:8)

여기에서의 열매는 제자가 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32] 이 열매에 대해서 Hendriksen은 사도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33] 빛의 열매,[34] 복음의 열매,[35]와 히브리어 기자가 말한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36] 야고보가 말한 의의 열매(약3:18)를 말하며 이것은 불신자들을 개종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열매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7]

예수는 제자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교사로서의 모본을 3가지로 보여주셨다.[38]

① 예수는 그자신을 제자들과 동일시하여 전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일치를 실현하셨고, 제자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②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③ 그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앞으로의 대비책도 일러주었다.

---

32) 천정웅, 전게서, p.227.
33) 갈 5:22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을 말한다.
34) 엡 5:9에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을 말한다.
35) 골 1:6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가는 것.
36) 히 12:11에서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말함.
37) Hendriksen W., op.cit., p.402.
38) 장지양,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열두제자 교육에 관한 연구」(미간행, 삼육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107-108.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의 제자교육에 새롭게 눈을 떠서 삶과 행동 그리고 말씀이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4) 個人敎育

예수가 그의 생애 속에서 행하신 모든 교육은 개인적인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대중들을 교육할 때도 구체적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를 내 보낼 때, 두사람씩의 각각은 개인적 관계들을 설정한 후에 보냄을 받았다고 Horne은 주장하고 있다.[39]

예수의 개인적인 교육은 개인적인 면담이었고, 그것은 현대 상담교육의 기초가 된다.[40] 그에게 있어서 「개인」은 가장 우선되는 관심거리였다.

그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보다는 개인을 만나는데 더 힘을 썼다. 예수에게 있어서 각 사람의 영혼은 가장 중요하였으며 가장 뛰어난 주목의 가치를 지녔다.[41]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삭개오, 소경, 백부장, 혈루증 앓은 여인, 마리아, 38년된 병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등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의 교육을 시도하셨고, 이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쳤다.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군중들로부터 멀리 데려가기도 하였다. (막8:23, 눅24:50, 마20:17)

Horne은 "그는 개인들과 더불어 일을 시작하여 무리들에게로 연장시켰으며, 결국에는 다시 개인들로 더불어 끝마쳤다. 그는 성공적인 그의

---

39) Horne H.H., op.cit., p.177.
40) 천정웅, 전게서, p.116.
41) 상게서, p.116.

사역속의 삼년간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는 무리가 갖는 그들의 속성을 인하여 개인들을 더욱 좋아하셨고, 또 개인들로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완성시켰다. 사실상 예수는 그가 개인들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무리들을 신뢰하시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신 일이 없으셨다"[42]고 예수의 개인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예수는 군중을 가르쳐서 얻는 교육효과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씩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를 더 크게 기대했다.[43]

예수의 개인 교육은 첫번째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人格을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배움을 갖게 된다. 동기유발적 암시(suggestion)나 모방(Imitation)의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더불어 만남을 갖게 될 때 인격의 영향력으로 인격적 교육이 시작된다고 헤르만 혼은 말하고 있다.[44]

이러한 인격적 교육은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

Towns는 말하기를 "예수의 질문과 대답은 테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학생들의 호기심, 정서, 그리고 사상과 생각에 관심을 가진 교육이었다"고 한다.

두번째로 예수의 인격적 교육은 강제적으로나 명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억지로 따라오게 하지 않았다. 개개인의 환경과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거나, 병들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며 인격적 대우를 아끼지 않으므로 그와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

42) Horne H.H., op.cit., p.178.
43) 천정웅, 전게서, p.120.
44) Horne H.H., op.cit., p.179.

세번째로 예수의 인격 교육은 배우는 사람들 스스로의 활동을 강조했다.

J.M.Gregory는 "일곱가지 교육법칙"(The seven laws of teaching)중 가르침의 법칙에서 "가르침의 법칙은 학생 스스로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지도해 준다. 또한 보편적으로 말해서 학생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일체 말하지 않는 것[45]이라고 했다.

Hendricks는 "교사는 전달자로서 학생에게 인상(印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이며,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46]라고 하였다.

Weigle는 "가르침은 오직 학생으로 활동하게 하는 한 성공한다"[47]고 학생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는 교사가 가르치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안된다. 그의 마음은 활동적이어야 한다. 삼륜운동 즉 지능적 지식, 감정적 충동, 의지적 반응이 필요하다. 학생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만 지식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 강의, 시청각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48]

예수가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결론을 내릴 때나(마5-7장) 달란트비유(마25장)에서나, 전도훈련 등에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이미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번째로 예수의 人格敎育은 친밀한 교제로 통해서 이룬 교육이었다.

예수가 제자들을 교육 하실때도 그러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며 그들을 가르쳤다. 문둥병 환

---

45) Gregory J.M., 「The seven laws of teacher」, p.82.
46) Hendricks H.G., 「Teaching to change lives」, p.63.
47) Weigle L.A., 「The teacher」, p.87.
48) 천정웅, 전게서, p.106.

자를 만났을 때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었다." (눅4:2)하였고, 심지어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도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마26:49)고 하시면서 끝가지 사랑을 베풀었다.[49]

예수는 백성들과 제자들과도 우정과 동정과 긍휼과 자비를 중단하지 않았다.

Hendricks는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머리에서 머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과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변화된 사람의 전인격이 동일한 은혜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50]라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인격교육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함께 가르쳤으며 함께 행동했다. 제자를 참으로 사랑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살피고 보호하였다.[51] 이들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므로 제자를 가르치고 대중을 가르치고 백성을 가르쳤던 예수였다.

5) 家庭教育

예수가 행하신 교육활동의 대상 중 마지막으로 고찰해 보려는 것이 가정교육이다. 예수의 사역 중 가르침과 이적의 장소는 산, 들, 바닷가, 성전 그리고 가정등 다양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가정을 향하는 교훈과 메시지를 찾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가정의 시작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

---

49) 상게서, p.108.
50) Hendricks H.G., op.cit., p.101.
51) 천정웅, 전게서, p.109.

서 예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는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5-6)고 말씀하셨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이어야 한다.

Mace는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사람은 모든 면이 비슷할 필요는 없다. 취미의 다양성,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두사람의 시야를 넓혀 다양한 생활로 이끌어 준다. 기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인생철학인 가치, 표준, 원리 등에 동감해야 하며 같은 태도와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52]

성공적인 결혼은 원만한 부부생활로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진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한 몸이다(마19:6). 피차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연합하여 조화를 이뤄 하나같이 사는 것이라고 권유순은 말한다.[53]

부부는 서로가 사랑하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여기며(창2:23), 서로 돕는 배필(창2:18)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환은 "부부란 장점과 단점, 호감이 가는 태도와 가지 않는 태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건설적인 행동과 파괴적인 행동 등을 포함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배우자를 수용하는 관계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54]

이 관계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동체로서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그리고 부부의 도를 지켜나가며,[55]그 기본 바탕은 사랑

---

52) Mace D.R., 「Sussess in Marriage」, p.16.
53) 권유순, 「가정목회 원리와 실제」(서울:보이스사, 1992), p.96.
54) 김종환, 「가정이야기」(국민일보, 1994.10.8일자), 25면.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는 사랑은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마22:37-40).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고찰해 보자.

첫번째는 부부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이웃을 사랑하라"(마19:19, 눅10:27) "원수를 사랑하라"(눅6:35), "서로가 사랑하라"(요13:34) 등등의 사랑에 대한 명령은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부부사이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실천이 가능한 말씀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56] 예수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마15:4)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으며[57]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눅2:51)고 기록하고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가정일 때만 가능함을 가르치고 말씀이다.

셋째로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가정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시127:3)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자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기에 자녀가 있는 부모는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고 김유순은 말한다.[58]

---

55) 골 3:18, 엡 5:22-25.
56) 출 20:1-17, 신 5:1-21.
57) 막 7:10, 막 10:19, 요 5:23, 8:49, 엡 6:2 참조.
58) 권유순, 전게서, p.105.

예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였다(막10:13-15).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천국 모델로 삼았다(마18:3).

특별히 탕자의 비유에서 어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탓하지 않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므로 자식에 대한 아버지 상을 가르쳐 주고 있다.[59]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모델은「예수」이어야 한다. 예수의 성장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눅2:52)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키고, 잘먹이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자녀로 키워야 할 것이다.

권유순은 사도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성서적인 가정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한다.[60]

① 아내는 남편에게 - 복종하라(엡5:22)

② 남편은 아내에게 - 사랑하라(엡5:25)

③ 자녀가 부모에게 - 순종하라(엡6:1)

④ 부모가 자녀에게 -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가정은 분명코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아름답고 나라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9) 눅 15:11-32.

60) 권유순, 「성서적인 가정목회」(서울:보이스사, 1992), p.66.

Ⅲ. 福音書上의 예수敎育의 成果

지금까지는 예수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예수의 교육적 사역의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는 자신의 가르침의 성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활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7:20)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 7:2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15:14)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15:15) 등의 말씀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예수의 사역의 결과는 그를 따른 수가 어떤 종교적 지도자나. 세상의 선생보다 많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 나타난 영향 또한 그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 19C동안 일어난 거의 모든 진취적인 운동은 다 예수가 그 운동의 주된 원천이었다고"고 Price는 말하고 있다.[2)]

Painter는 "기독교가 교육에 미친 영향들 가운데는 , 민족적 한계와 편견의 착고들을 풀어준것, 개인에게 적합한 존엄성을 부여해 준 것, 계층과 계급의 헛된 구분들을 말끔히 쓸어 버린 것, 노예를 폐지시킨 것, 사회의 압박들을 타도한 것, 결혼을 신성한 의식으로 높여 놓은 것,

---

1) 송덕준, 전게서, p.89.
2) Price J.M., 「Jesus the teacher」, p.15.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게 끔 만든 것 등"[3]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예수교육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교육적 사역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人格의 變化

예수의 교육은 새로운 인간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케 해 주었다. 예수가 오시기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인격을 지닌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4]

예수 시대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업신여겼으며, 이방인들은 미개인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5]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그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비난하기를 거절했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정한 이웃간의 우정이 필요함을 가르쳤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人格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오게 했다.[6]

그 결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인격이 변화되었으며, 질병을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인격적인 삶을 시작하였다.(마 8:1-4, 9:1-8)

---

3) Painter,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1894), p.84.
4) Price J.M., op.cit., p.125.
5) Ibid., p.126.
6) Ibid., p.128.

2. 삶의 變化

예수의 교육적 성과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과 불안정한 인격에서, 안정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행4:13-14) 요한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청년으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변했고,(요일4장)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행12:1-2), 니고데모는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요19:39)으로 변했다. 특별히 삭개오는 돈만을 사랑하던 세리로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로 갚겠다고 서원한 최초의 크리스천 박애주의자가 되었다.(눅19:8)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인물들이 세상의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창출해 내었으며, 역사의 진행을 바꾸어 놓았다고 Price는 주장한다.[7] 오늘도 이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3. 改革의 刺戟

예수를 사회개혁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의 가르침과 태도는 역사상 위대한 도덕적 개혁을 가져왔다고 말 할 수 있다.[8] 그의 가르침은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사회의 가장 큰 개혁을 일으켰는데 여권의 보장(마15:28), 어린이의 권한 인정, 인종을 불문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마16:26)들은 분명한 개혁운동이었다.[9]

이러한 예수의 개혁운동은 인간생활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변화가

---

7) Price J.M., 「Jesus The Teacher」, p.129.
8) Ibid., p.129.
9) Ibid., p.129.

일어났다.

첫째로 가정의 제도이다.

그 당시의 가정은 매우 좋지 않았으니 부모들은 거의 완전한 권한을 지녔는가 하면, 어린이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아무조건에서나 이혼할 수 있음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하였으며, 아내가 간음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마19:3-9)고 가르치므로 가정의 존엄성이 새롭게 인정받게 되었다.

둘째로 국가제도이다.

이전에는 국가제도가 황제와 같은 절대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진 제도였다. 백성은 그에게 속해있는 종속자들이었다.[10]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황제, 나치하의 독일, 파시스트의 이탈리아, 천황을 가진 일본 등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11]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모든 제도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막2:27) 가르치므로 사람 중심의 국가제도를 주창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 내세워진 지키기 어려운 율법주의를 폐하셨고, 만민주의 (민중이 다스리고 주인되는 주의)를 가르쳤다.[12]

세째로 산업제도 이다.

예수는 달란트 비유에서(마25:14-30) 모두가 일해야 함을 보여 주시고 일군은 일한 삯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다(마20:1-16)[13]

---

10) 송덕준, 전게서, p.92.
11) Price J.M., op.cit., p.131.
12) Ibid., p.131.
13) 송덕준, 전게서, p.92.

이렇게 보면 오늘날 산업에의 종사와 이익분배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특전은 대체로 예수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奉仕生活의 刺戟

예수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고 하였다. 이것은 봉사를 자극한 그의 모범적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4]

예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쉽고, 평안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힘과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와주도록 가르쳤다.[15]

이러한 예수의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은 문명세계의 호화로움을 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내어 걸고 지상에서 가장 어둡고 미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16] 이들은 예수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감화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오늘날 존재한 많은 양로원과 고아원,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자를 고쳐주는 병원등이 이러한 예수의 봉사정신에서 감화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Seeley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17]

"그리스도교 정신은 어느 곳에서건 병원들과 요양소들 그리고 자선단체들을 일으켜 세우곤 했으며 학교들과 대학들을 설립하도록 했고, 교육을 넓게 보편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개인을 향상시키

---

14) 상게서, p.93.
15) Price J.M., p.136.
16) Libingstern, Judson, C.Barton, F.willard, J.Addams 등등.
17) Seely,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third Revised Edition, 1914), p.100.

곤 했고, 인류의 형제의식을 촉진시켰으며 사람들 사이와 나아가서는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를 증진시키곤 했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 가르침과 인격존중에 기초한 교육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뜨거운 인간애의 교육! 그것이 가장 힘있는 교육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교회 교육 경영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한 시도로서 복음서상에 나타난 예수 교육론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요약및 결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 約

1. 예수 교육론에서의 교사 자질론은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불리워졌다는 것이며, 그 당시 지도자요, 교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다 더욱 존경을 받으며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의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고백하였고, 수만명에 이르는 청중이 그를 따를 정도로 그의 교훈은 힘과 능력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30세까지 회당과 가정에서 교사로서의 인격과 지식을 폭넓게 준비하였기 때문이었다.

2. 예수교육론의 교육목표는 영혼 구원, 인격적 성숙, 육체적 안녕, 생활의 안녕 그리고 복음증거를 위한 목표였다. 이것은 인간의 영과 혼(정신)과 육체를 위한 것이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3. 예수 교육론의 교육원리는 오랜 관찰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던 관찰의 원리와 제자들과 생활속에서 개인적 접촉을 가졌던 접촉의 원리, 교육자체를 생활로 연결시키는 생활화의 원리, 공동 활동으로 훈련을 시켰던 공동체의 원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 하도록 가르치는 제자화의 원리, 또 하나는 모든것 이전에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화의 원리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말씀을 선포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환자를 고쳐주며, 모든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예수 교육론의 교육 내용은 구약성경이었다. 그는 구약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의미를 담아 현재의 사건과 관련시켜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나라」와 복음을 가르쳤다.

특별히 천사와 사탄에 대한 교육은 백성들이 유혹을 이겨야 하며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가르침이었다. 사탄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쁜 길로 접어들게 하는것이었으며, 이 유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여 선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천사의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백성들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5. 예수 교육론의 교육방법은 독창적이었다. 언어적인 방법으로는 강의법,질문법,응답법,대화법,비유법 등이었으며, 삶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 훌륭한 교육방법이었다. 친히 본이 되시며, 훈련을 시키고 서로 깊은 교제를 가지므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그리고 상징을 통한 교육은 실물, 사건, 극화 (Dramatic)등의 방법으로 가르쳤다.

6. 예수 교육론의 교육영역은 다양하였다.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무리로 모여들었던 일반대중에게 교훈하였고, 70명의 제자와 12명의 제자를 특별한 교육으로 훈련하였다. 그리고 개인들을 상대로 상담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기초이고 하나님나라의 그림자인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7. 예수의 교육적 성과는 개인적으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 졌으며 사회적으로는 사회개혁과 국가제도 그리고 산업제도에 영향이 미쳤고 무엇보다도 봉사생활에 자극제가 되었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의 원리가 되었으며, 더 좋은 사회의 기틀이 되었다.

2. 結 論

첫째로, 예수의 교육이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현대교육에 있어서 땅에 떨어진 敎權을 회복하는데는 좋은 實例가 될 것이다. 예수는 교사로서 완벽하리만큼 성숙한 인격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충분한 준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로, 예수의 교육은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했기에 그의 교육은 흔들리거나 비뚤어지거나 곁길로 나갈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셋째로, 말로나 행동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까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교육의 목표가 확고했기 때문이었다.

넷째로, 예수의 교육은 확실한 원리 즉, 관찰의 원리, 접촉의 원리, 생활화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제자화의 원리, 인간화의 원리로 실시되었기에 많은 청중들이 그 당시의 교사들을 버리고 예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이들에게 힘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예수의 교육방법은 강의법, 질문법, 응답법, 대화법, 비유법 등의 언어적인 방법과 삶을 통한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이에 따른 교회교육의 원리나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요청된다.

여섯째로, 예수의 여러가지 교육영역에서 다양한 지식수준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직업의 종류,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접해있는 교인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예수의 평범하고 쉽고 누구나 이해하고 결단하도록 가르쳤던 교육방법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예수 교육론의 특성이 예수의 교사 자질론, 교육내용, 교

육목표, 교육원리, 교육방법 그리고 다양한 교육영역의 내용 등으로 구체화 되어졌다.

이의 교회교육과 그 경영 기법으로서의 적용이 기대된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성경전서」①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 성서공회, 1956.

② 표준 새번역, 서울, 대한 성서공회, 1993.

③ 한글 킹제임스판, 서울, 말씀 보존학회, 1994.

「새국어 사전」, 서울 교학사, 1994.

강희천외 8인 「기독교 교육사」, 서울, 교육목회, 1992.

곽선희 「예수의 비유강해」, 서울, 혜선출판사, 1986.

권유순 「가정목회 원리와 실제」, 서울, 보이스사, 1992.

김대경 「예수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김미영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예수의 교육원리」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김순석 「행복한 우리가정」, 서울, 말씀과 만남, 1994.

김찬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교육사상」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형태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5.

류형기 「성서주해」, 서울, 기독교문화원, 1976.

민영진 「성서대백과대사전 1-12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박영호 「개인전도 핸드북」.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3.

백용희 「쉐릴의 공동체 교육」,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0.

방도호 「예수의 교육원리와 교육중심의 목회」,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차선각「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교육협회, 1992.
송덕준「예수의 교육방법,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이상근「마태복음 주해」서울, 기독교문사, 1975.
이성호「성구대사전」서울, 혜문사, 1977.
이윤근「기독교 효도관」, 서울, 크리스천서적, 1987.
이창근「복음서에 나타난 교사로서의 예수그리스도」, 인천, 엘멘 출판사, 1990.
임태년「예수의 교육원리」, 침례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은준관「교육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오인탁외 4인「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양은순외 3인「행복한 가정생활」, 대구, 기독교 대학 설립 통역회, 1993.
장지양「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열두제자 교육에 관한 연구」미간행, 삼육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정인찬「성서대백과 1-7 권」서울, 기독지혜사, 1979.
정웅섭「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정웅섭「기독교 교육개설」,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76.
천정웅「기독교 교육 방법론」서울, 지혜문화사, 1984.
현용수「문화와 종교교육」, 서울, 쿰란출판사, 1994.

2. 外國文獻

C.B.Eauey,「The art of effctive teaching」, 박영호역「기독교 교육 방법론」,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1.
C.H. Dodd,「The founder of christi anity」한준석역「예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Donald E, Miller 「An into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고용수, 장종철 공역,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1.

Findly B. Edge, 「Teaching for results」, 노윤백 역, 「효과적인 성서 교수법」, 생명의 말씀사, 1991.

Herman Harrell, Horne 「Techniques of Jesus」, 박영호 역, 「예수의 교육 방법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3.

Howard G, Hendricks 「Teaching to change lives」, 김의원. 조남수 공역, 「교사입니까」, 아가페 문화사, 1994.

James Stalker 「The Life of Jesus Christ」 New York. American Tractsociety, 1981.

James S, Stewart,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김득종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서울, 컨콜디아사, 1992.

J.M. Price 「Jsus the teacher」 김철호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3.

J.M.Gregory, 「The Seven Laws of Teacher」, 이종수역, 「7가지 교육 법칙」, 생명의 말씀사, 1979.

John W. Little 「Teaching as Jesus Taught」, 안재복역. 「예수의 교육법」,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1964.

Lawrence, O.Richards, 「Creative Bible Teaching」, 권혁봉역 「창조적 인성서 교육법』, 생명의 말씀사, 1975.

Limer L.Towns,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ors」, 임영금역, 「인물 중심의 종교교육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L.T.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ian Company, 1969.

Marvin J.Taylo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송광택역 「기독교 교육학」,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Merrill f.Unger, 「Biblical Demonology」, 정학봉역, 「성서적 마귀론」,

서울, 요단출판사, 1981.

Norman Anderson,「the Teaching of Jesus」, 박영철역, 「예수의 가르침」, 서울, 요단출판사, 1988.

N.T.Calvin 「Comentaries st, John, Vol 4.」

Painter, 「Hisory of Education」, New York, 1894.

R.Calkins 「How Jesus Dealt with Men」, New York, Abingdon coke subury Press, 1942.

R.C.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et, John's Gospel Vol.1.」, 「The Interpreter's Dictionarry of the Bible Vol.4」, New York, Abingdom press, 1962.

R.C.Miller 「Christian Nature and the Church」,서광섭, 박형규공저 「기독교 교육과 교회」, 대한기독교 서회, 1965.

Robert H, Stein 「The Method and Message of Jesus Teachings」, 유재덕 역, 「예수의 교훈내용과 그 방법」, 서울, 할루야 서원, 1994.

Sara Little, 「Teaching in the church」 사미자역 「기독교 교육 교수방법론」,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91.

Seely,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1984.

G. Kittle, 「Theol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8, Germany, Eerdmans Publishing Co., 1972.

J. Knox, 「The Interpreter's Bible Vol. 7」,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Willian Handrickson, 「The Gospel of John, 3.Vol」 유영기譯,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Educational Theory of Jesus Christ Appearing on the Gospels

-An Attempt to pursue the Subitance of the Management of Church Education-

Kim, Haeng - Sick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teacher quality theory in Jesus' educational theory allowed Jesus Christ to be called the teached by many people, and Jesus Christ was more respected by people than the leader and teacher, pharisee and the scirbe and received tradition and dignity. His teaching allowed the audience to confess that "His teaching" differs from that of pharisees and scribes.

His lessens had power and potency to an extent that tens of thousands of andience followed him. This was because Jesus Christ had prepared himself for personality and quality as the teacher until 30 years of age at home and at the synagogue.

2.The educational objective of Jesus's educational theory ws focused on the salvation of souls, personal maturity, physical peace, living peace, and evangelical testimony. This was for the sake of human soul and spirit and body and of growth as the perfect man.

3.The educational principle of Jesus' educational theory include : the observational theory that Jesus selected disciples the contact principle that

scame into personal contact with disciples in everyday life, the community principle that Jesus trained disciples through a collecive life, the principle of vitality that Jesus linked education itself to the life, the principle of disciplization that Jesus taught everybody to bear testimony to Gospel,and finally the principle of humanization that Jesus taught that man should be true man before everything. Based upon these principles, Jesus propagated God's words over the land, carried out miracles and mighty works, and healed parients and performed all kinds of educational activities.

4. The educational content of Jesus's educational theory is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He taught people in connection with a event by pouring original and independent meanings into God's words in the Old Testament in a state that perfectly understood the old Testament. And he taught his followers God's kingdom and Gosples. Especially, the education of angel is the significant meaning that subjects should defeat satan's temptation and can not possess God's kingdom if they do not seek good. The work of Satan was to drive subjects to lead into a evil way, whereas the employment of angels was to help subjects win over over temptation and lead a virtuous life. Therefore, Jesus taught subjects to become the protagonists in God's kingdom by allowing them to realize this fact.

5. The educational method of Jesus's educational theory was original.

Its vervbal methods included the discourse method, the question method, the answer method, the dialogue method, the metaphoric method, etc.

It was the well-known educational method that Jesus taught his followers thorough day-to-day lives. He became a good example to others in person, trained his followers and kept deep company with them. His education was one carried out through this process. In education through symbols, he

taught his followers in manners such as real objects, event, dramatization, etc.

6. The educational domains of Jesus' educational theory were diverse. He taught scribes or pharisees, the leader at that time, and gave instructions to the public at large that gathered in groups, and trained 12 disciples and 70 disciples through a special education method. He helped individuals resolve a new life by consulting with them and taught people the importance of the home that is the basis of this society,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nd the shadow of God's kingdom.

7. The educational outcome of Jesus' educational theory is the important fact that it led to the change in individual personality and life in terms of individual exerted an influence on the social reform, the state system and the industrial system in terms of society and, among other things, became the stimulant to a voluntary service life.

This has become the principle of a new community life and the framework for the better society.